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전에 군위 편입 끝내야”

선관위 법률안 시행 입장 표명

예비후보 선거운동 제한 우려
 “행안부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
 군위군민 혼란 최소화해 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이전에 ‘군위 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14일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빠른 시일 내 군위 편입 법률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은 군위군과 맞닿아 있다.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동구을은 북구을과 함께

군위군과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곳이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남은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군위군의원은 “관련 법이 조속히 처리돼 시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천 관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대구 편입은 물론 선거구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돼야 예비후보는 물론 주민들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합격의 길’ 찾는 학부모

14일 오후 대구 남구 하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2022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모집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대 이하 ‘집 부자’ 대구에서만 555명

상속·증여 영향 ‘부의 양극화’ 심화

지난해 대구 다주택자 중 20대 이하는 555명, 미성년자는 44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성년 다주택자는 모두 1천77명이었다. 국내 상위 1%의 주택자산 가액은 30억8천900만원으로 하위 10% 4천500만원의 68.6배에 달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 보유 등에 따른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전체 다주택자 10만2천978명 중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555명(0.53%)이었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 다주택자는 44명이었다.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생애 출발선부터 ‘집 부자’가 됐다는 의미다.

전국 다주택자 231만9천648명 중 20대 이하는 1만5천907명, 미성년자는 1천77명이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 절반이 넘는 8천793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경기도 3천878명, 서울 3천422명, 인천993명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를 주택자산 가액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는 4.75채,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0억8천900만원이었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4천500만원으로 약 68.6배 차이가 났다. 하위 5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상위 1%의 주택자산 가액 대비 17분의 1 수준이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 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경산 인구 10년간 ‘2만명 성장’ 비결은

〈2011~2020년〉

도시철도 연장·택지개발 늘고
 ‘사망자<출생자’ 자연증가 한몫

같은 기간 대구는 9만명 감소
 환경·일자리 찾아 전입 시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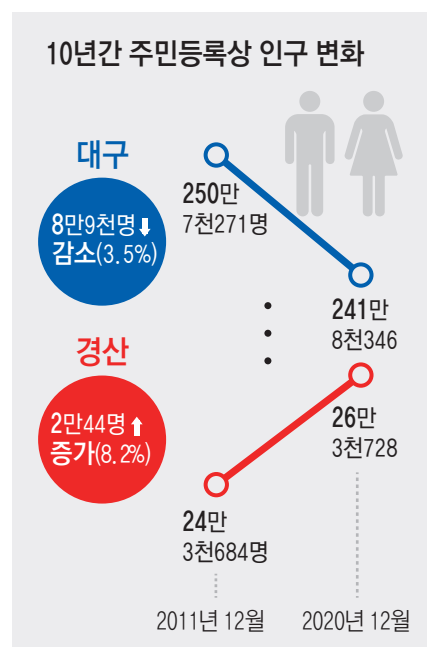
대구경북 대부분 시·군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산시 인구는 10년 새 무려 2만여 명 늘었다. 대규모 택지개발, 대구도 도시철도 연장 등 주거·교육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같은 기간 대구 인구가 10만 명가량 줄어든 상황에 비춰볼 때 대구 사람들이 경산으로 옮겨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주민등록상 인구(내국인)는 241만8천346명으로 2011년 말 250만7천271명보다 8만9천 명가량 줄었다.

그런데 경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20년 12월 말 26만3천728명으로, 2011년 12월 말 24만3천684명보다 8.2%(2만44명)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서부2동, 동부동, 북부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산시 인구가 늘어난 데는 자연 증가도 한몫을 했다. 10년 이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다는 말이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출산이 크게 감소한 지난해에만 사망자 수(1천722명)가 출생아 수(1천365명)보다 조금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교육, 환경, 교통 편의성, 일자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르면서 중산·백천·대평·계양·사동·하양 등지가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지난 10



년간 35개 아파트 단지에 1만9천876가구가 입주했다. 게다가 경산3산업단지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로 일자리도 늘었다. 10년 전보다 사업체는 6천여 개 증가했고, 일자리는 2만1천183개에 이른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영남대까지 연장됐고, 1호선은 하양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경부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

도로 등을 통해 인근 도시와의 시간 거리가 짧아졌다. 도시 환경도 대도시에 비해 쾌적해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인구 증가의 요인이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20여 년 살다가 3년 전 경산 중산지구로 이사한 한창우(60) 씨는 “자녀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경산을 택하게 됐는데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정라건(33) 씨는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년 6개월 전 경산의 금형공장으로 이직하면서 경산으로 왔다”면서 “고향인 대구에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도시에 사는 느낌이다. 정서적으로 푸근하고, 살기에 편리하다”고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 포함, 구미에 이어 도내 3위 도시가 됐다”면서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좋다는 평을 듣지만 대구 수성구에 비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 경산에도 명문 중·고교를 육성하는 등 교육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2022학년도
 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21.12.30(목)~2022.1.3(월)
 (특성화고졸 재직 3년이상인 자/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입학문의 | 053) 600-4720~4, 4727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2021년 한해동안 **칠곡가톨릭병원**에
 많은 사랑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며
 의미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 **20** **대구 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새로운 도약, Together Jumping 2022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 통합콜센터 : 053)320-2500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치과/건강검진센터/응급실

여하튼
노비티-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Colorful
DAEGU

땅과 사람, 바른 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100년 만의 지적재조사,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지적재조사 개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2~2030(19년)

■ 사업규모

○ 총사업량 : 39,548필(402개지구)

■ 추진목표

○ 전 국토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 이행
○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0~2

지적재조사 효과

사업 전

지적불합치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사업 후

지적재조사로 답을 찾으세요.

구불구불한 경계

01

땅이 바로고 쓸모있게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토지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02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맹지 해소

건물 경계저촉

03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문제를 해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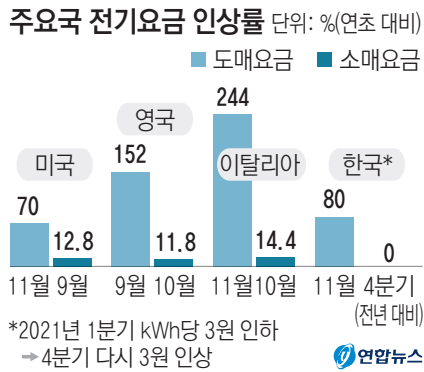
현실 경계 확정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바른땅**
반듯하게, 기차있게, 행복하게

원자재값 고공행진...전기·도시가스료 인상 대기

석유·석탄·천연가스 폭등에
美·유럽 줄인상, 국내선 동결
업계 내년 초 인상 방향 협의
물가 상승분 맞춰 요금 준비
정부도 경영난 해소 나설 듯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정부 경제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원가 급등에 따른 비용 압박으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으로 쓰이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가장 인상하는 방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가스요금 '동결안'을 밝혀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은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제품의 원자재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코로나 19로 수요가 급감해 최저가(배럴당 23.38달러)를 찍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와 함께 지난해 80달러로 폭

등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등도 비슷한 추세다.

석탄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호주 뉴캐슬탄의 가격은 지난해 8월 1t당 51.38달러로 최저가를 찍은 후 지난해 240.73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모두 줄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인상 폭이 많게는 세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

반면 국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 가격은 1월 대비 80% 올랐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돼 전기요금을 4분기에 kWh당



우리나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3분기(7~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다.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3원 올렸지만 이는 지난 1분기 kWh당 3원을 내린 것을 원래대로 돌린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13.1%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 적절한 지원 정책을 고려하되 물가 상승분에 맞는 수준의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난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요금이 더 크게 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계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 적절한 지원 정책을 고려하되 물가 상승분에 맞는 수준의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난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배달 국수 한 그릇이 1만원?

대구 소비자물가 1년 사이 3.7%↑
외식업계 "안 올리면 남는 것 없어"
기후위기·코로나로 당분간 오름세

료를 사서 완제품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자영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한모(50) 씨는 지난 주말 점심에 모처럼 국수가 생각나 배달앱을 쳤다가 깜짝 놀랐다. 칼국수는 7천500원, 잔치국수는 7천원이었다. 배달료까지 별도로 3천원을 받고 있었다. 한 씨는 "배달 국수 1인분에 1만원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안 내린다는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대구지역 식당에서 판매하는 칼국수 평균 가격은 6천250원으로 1년 전 가격(5천917원)보다 5.6% 올랐다. 김치찌개가 5.3%(6천333원→6천667원), 김밥은 5.2%(2천217원→2천333원), 비빔밥 가격은 4.4%(8천667원→9천500원) 각각 올랐다. 짜장면과 냉면 가격도 3.3%, 1.9% 뛰었다. 최근엔 햄버거와 치킨을 대표하는 외식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나섰다.

14일 대구 달서구 한 분식집에는 김밥 가격을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렸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게 사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어딜 가도 식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올리지 않고는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수입 소고기 1kg 가격이 불과 1년새 2만원 올라, 7만원이나 줘야 한다. 다른 식재료 역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재료 가격 인상 요인은 복합적이다. 당분간 외식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세계적인 기후위기 현상으로 곡물 수확량이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어 주요 항만의 선적 지연과 운송비 상승 요인도 있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외식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달 대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 물가는 각각 5.1%, 6.3%까지 더 올랐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7.2% 급등했다. 이는 곧 장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식재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며 "방역 패스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적자도 인상 요인"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염색공단 업체 연료비 1달 만에 月 4천만원 추가 부담

석탄 구매·해상운임 등 2배 올라
t당 1만7천원→5만원 수준 올라
"수도 요금 감면 등 市 지원 절실"

대구경북 제조업계가 에너지값 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석탄을 태워 증기를 생산하는 염색업체와 가격이 올라도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없는 뿌리업종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 구매단가가 지난 7월 공개입찰에서 1t(톤)당 167달러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증기요금 단가는 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 들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

는 석탄 가격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 해상운임 폭등과 맞물리면서 2배 이상 오른 영향을 받았다.

염색공단 입주업체 증기요금 단가는 지난 9월까지 t당 1만7천원이었으나 10월부터 2만6천500원으로 올랐고, 인상된 석탄값이 모두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5만원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증기요금도 9월까지의 월평균 2천400만원 수준이었지만, 10월부터 3천700만원으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6천800만원 가량을 내야 할 전망이다. 불과 4개월 만에 증기요금만 월 4천4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염색공단은 최근 유연탄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인 점을 감안해 당장

필요한 물량만 구매하고 추가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감 부족과 인력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업체들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염색공단은 대구시로부터 내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바라고 있다.

김이진 염색공단 이사장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대구시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증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요금 감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급등한 발전단가에 비해 상승세가 주춤한 전기 요금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

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해외 전기요금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주물이나 열처리, 도금 등 제조 특성상 설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뿌리업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업체에 따르면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에 차지하는 비중만 15%에서 30%에 이른다.

대구 주물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 오른 전기요금에 내년 한 차례 다시 오르면 대부분의 뿌리업종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면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경주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찾아가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경주

尹, 본부장 의혹에 진땀...“부인 경력 완전 날조 아냐”

〈본인·부인·장모〉

〈김건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재직증명서 있고 수상 기여
고발 사주 지시할 이유 없어
장모 징역 선고는 과잉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이른바 ‘본부장’ (본인·부인·장모) 의혹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날 언론인 패널들과 토론회선 가장 먼저 지난해 총선 직전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후보는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며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지,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제가 유임을 요청한 사람 대신 추밀에 전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라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했던 마당에 누가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 달라 했어도 (부실수사하는 일) 절대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를 구속할 만큼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과잉수사로 본다”고 말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후보는 “수상 경력이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과 작품 출품을 했고, 그 회사가 제자들과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에는 “실험 논문이라 베껴서 쓸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판단해 표절률이 높아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이라 했다. 한국계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 의혹에는 “실제 이사 직함을 갖고 계임산업협회 일을 상당기간 도왔다”며 “대학에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고 맞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서 1년 반 동안 계좌를 전부 열어봤고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선 때 기소했을 것이다. 1년 반 동안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해도 안 나왔으면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최근 합익병·노재승 씨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잘못된 건 전부 제 책임”이라면서도 집권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김건희 인터뷰 후폭풍 잠재우기 고심

‘내조 등판’ 시기 딜레마

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일부 해명 적절성 여부 도마 위에

국민의힘이 ‘내조(內助) 등판’ 시기를 저울질 중인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언론 인터뷰 후폭풍 잠재우기에 부심하고 있다. 허위경력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진 데다 일부 발언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김 씨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이 허위라고 보도한 YTN과의 14일 인터뷰에서 “돌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계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쓴 경력과 관련해서도 협회 설립이 2004년 6월이어서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수상 경력을 진학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며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계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원활동을 했고, 이후 협회 사무

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김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 전 화통화에서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의 ‘등판 스케줄’도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선불리 공개활동에 나섰다 여권의 집중포화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마냥 등판을 미루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신용 기자 ssytk06@maeil.com

與 “윤석열 장모, 성남 땅 차명 보유해 54억 과징금”

국힘 “이미 수차례 알려진 내용”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공소장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은순 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은성 기자

이수정 “줄리 의혹, 여성 음해 음란 판타지”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
“불법행위 유죄 나오면 책임져야”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 “여성을 음해하는 터무니없는 음란 판타지”라고 말

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두고 “증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25년 전 잠깐 스친 여자 얼굴을 외모 변화에도 알아볼 개연성은 증인으로서 매우 부적당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제

일 높은 선출직이 대통령인데, (김 씨에 대해선) 그분의 부인이라고만 생각한다”며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국모인가”라며 민주당 공세를 비난했다. 다만 김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는 조사해야 하고, 유죄가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8년 된 남편이 아내의 과거 수십 년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윤 후보를 감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

보를 향해선 “두 건의 스토킹 살인사건 변론이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계기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는) 피해자를 수십 번 찔러 죽인 사건에서 심심미약을 주장했던 조카 사건에서 다른 교제살인 사건에서도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무지한 방식의 변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과 약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모두가 선택하는 전광판 광고

광고 기간과 영상 변경의 **자유로움!**

기존 광고 보다 **비용대비 높은 효과!**

다이나믹한 영상 송출로 **시각 효과 극대화!**

지속적인 영상 광고로 **소비자 관심도 급상승!**

(주)엔애피미디어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15, 2F

문의 전화 **010 . 9359 . 7058**

국힘 ‘선대위 리스크’ 윤석열 지지율 발목

권성동 본부장 성희룡 의혹 추경안 놓고 김종인과 이견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 필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바람 잘 날 없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때문에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삼두마차’(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시너지와 실종 ▷병풍으로 물러나지 않는 대표 ▷이따뎀 영입인사 낙마 ▷권성동 사무총장 등 후보 핵심 참모의 추문 ▷파열을 커지는 내부조직 건 위상 경쟁 ▷물의 인사 복당 시도 등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윤해관(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지난 10일) 강릉 한 식당에서의 성희롱 사건 당시 상황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라”며 “112 출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권 본부장은 전날 성희롱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악의적 조작”이라 반박했지만 윤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두고 윤 후보는 빠른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가 말할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는 김 총괄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 내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큰 손실보상 추경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리된 메시지가 나갔어야 했다”며 “후보보다 앞서려는 인사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려 영입한 인사들의 과거 전력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일명 ‘비니자’ 노재승 씨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발탁됐다가 중도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변호사가 과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제보를 묵살했다며 공세를 폈다.

당 관계자는 “후보가 결심을 하려면 선대위 내 조직과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야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코로나 검사 이재명 “거리두기 즉시 강화”

검사 결과 기다리며 긴급성명 “총력 대응 넘어선 특단의 대책을” ‘전두환 재평가’ 후폭풍 돌파 모색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일정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정부에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 및 소상공인 선제 보상을 주문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두환 재평가’ 후폭풍 돌파를 모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만난 당 관계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

함에 따라 이날 부인 김혜경 씨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찬대 수석대변인의 대독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특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에 대해서는 “접종 부작용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대구경북 방문일정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며 ‘표리부

동’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는 여야를 불문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정부에 방역 강화 및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이슈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이 코로나 검사 현장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한 것도 이날 성명 발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후보가 직접 긴 줄을 대기하면서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방역에 참여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느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kbh7133@maeil.com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개최

14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열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한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경시장 출마

출판기념회서 발표…후임 주목

채홍호(사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문경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저서 ‘채홍호가 일내여!’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30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고향 문경을 반드시 발전시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경제문화 도시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낸 권영진 대구시장은 “채 부시장과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장에서 함께 싸워



온 끈끈한 전우애가 있다”며 “그의 책은 새로운 지방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저자를 많이 응원해 달라”고 했다. 채 부시장의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그의 후임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이날까지 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후보군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관행대로 행정안전부 측 인사가 내려올 경우 김종환 안전관리정책관, 김학홍 민방위심관, 안병은 대변인, 조상명 지역혁신정책관 등이 자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천 기자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이르면 이달 내 법안 처리 예정 주택 판 사람도 소급 적용 검토 윤호중 “효과 없었다 의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 매물 잠김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고,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와 논의 과정에서 충

돌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 처분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중과 1년 유예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급 적

용 여부에 대해선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5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을 공

개적으로 내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5월 말까지 유예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양도세 중과 유예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호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1년 전 유예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주택값이 하향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 매도의 적기”라며 “한시적 유예의 정책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콘도 회원권 급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 매각합니다

콘도명	사 용 체 인	면 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660	1,880
		스위트형 방 2개	3,790	2,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대전, 수안보, 제주, 거제, 산정호수	디럭스형 방2개(기명)	2,530	1,780
		디럭스형 방2개(무기명)	3,160	1,9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도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 (21) 방1	1,980	1,080
		스위트A (26) 방2	2,120	1,480
		스위트B (31) 방2	2,600	1,6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텔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 (24) 방1	2,250	1,380
		골드 (28) 방2	2,650	1,680
		로얄 (34) 방3	3,960	2,9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부동산

상가주택

상가주택 1000만부

2층 신축

대237㎡ 비산동

2천원수 수성구급매입(053)571)0403

No. 27170-2020-00012 서구 은리부동산 양현석

상가

사무실

부동산합동사무실

200/22(사·관·관리포함)010)3200)3069

No. 27-2014-00079 밀서구 본동 개업점(중개사)공공사무소

일 반 상 가

매매·임대

(구)창제이방우체국 1층상가 2층주택 대150 주안상당 010)2066)5110

급매

사정상급매 분양525 전용336 보4억 월1800만 인수9억9천 대형마트성업중 용화 010)6624)4580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양 보유 010)8242)4406

상가

부지 시세이하 현당층상가 지하철대로점 대698㎡ 보8천 월700만출 매61억3천 010)3536)4916

No. 27170-2020-00012 서구 은리부동산 양현석

급매

달구벌대로 역세권 2층상가 분양529㎡전용291㎡ 매9억 8천만 병원·학원최적지010)2514)2388

No. 가-17-3665 밀서구 현진공인 현상석

수익률好

건물 매매 62억 대지149 연면적821 보충금3억 월1900 010)4643)6770

No. 27200-2021-00065 남구 수원공인 유길하

사옥·교회부지

통상가 북구연경 동 대200 건300 주안적010)6727)3330

달구벌대로

990㎡ · 1600㎡ 병원·상가·다용도부지 010)9359)6989

카페

매매(매점카페·피자·경양식) 보2천 전리금8천 월세1백/전 세가는 보5천 월50만 010)9294)9006

모텔·목욕탕

폴리스 내 모텔부지 공동사업 및 매매 도시철도 역소속중점010)2929)8000

No. 27290-2018-00121 밀서구 청해부동산 김재덕

대지/임야/공장

2334㎡ 주말농장 전원주택지 매5억2천 010)7373)9939

No. 27290-2020-00067 밀서구 평명부동산 최용석

투자용 땅

(급매) 94,876㎡(27800) 복안C부근 / 임야 전 계획관리지역 010)8579)1801

병원부지

역세권 대로로 코너 위치최고 전면 넓고 대1100㎡ 급매 110억 010)3501)1477

철곡

기산면 행정리 44번지 2216㎡ 단40만/영전 청룡 애런리 261 번지 2069㎡ 당30만 010)3506)6105

No. 27170-2021-00032 서구 비전공인 신윤경

청도 이서

대당 5,000원 27,768㎡(8,400) 자연과함께살보 남동향010)3819)1212

대단지

APT입구 최고상권 상인동 1315㎡ 사거리 코너 3.3㎡당 2100만 053)765)9882

No. 27260-2017-00171 수성구황금수성공인 백현철

아파트

4700세대당 대도로점 1700㎡ 자연녹지 당170만 010)4538)4590

급매

공정 성주읍 상산리 대767 건160(사무실) 신축, 고8M 층층가 매8억 010)3528)3307

No. 가-17-261 밀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역세권

부지급매 대구 남구 30M점 명도코 대468㎡ 당2450만 010)8582)5810

No. 27200-2021-00067 남구 고령김동수 이상규

분 실 공 고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13-120번지 현대선빌빌층당로역 1509호(계약자: 강해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이후 무효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02-144번지 일원 한라하우젠트센텀 214호(계약자: 변정숙) 오피스텔 조합원공급계약서 분실. 공고 이후 무효임.

모 집

배달원모집

동성지국 422)0017

남녀 연령 제한없음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985)1137

숙식제공 불로지국

배달

사립모집 오토바이소유자 및 승현1·2동거주자 환영 승현 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총무·배달원

모집 남대명지국 656)3122

초보모. 휴학생 우대

총무·배달원

대현2동 신암2동지국 214)3113

월급 약200

배달원모집

남부지국 봉곡동 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지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남노노 252)7741-010)2511)1274

결혼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수립결혼정보

조혼 재혼 (조혼) 의사·교사 등 대구경북·서울 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통반 국가등록 대우 200-338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010-3810-3003 *특별 매니저 초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73) 동인3가 271-128 TEL 053-424-5500 FAX 053-423-6003

내아들 짝 찾습니다

외동아들 36세 / 180cm, 70kg 대졸, 군필 / 아파트 정비사로 재직중 (20-30대선호) 누나4명 출가했음 대구 서구 아버지 010.6670.2888

대출·채권

광고문의 : 251-1234

증자/잔고증명

주식대출/카드대출 053-218-0171

권리신청최고

우리청 소속 공증인 김선영 변호사가 2017. 12. 31.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공증담당 변호사에서 탈퇴함으로써 우리청에 보관중인 공증인신원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19조 및 공증인자격심사위원회보증금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환부 공고 하오니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1년 12월 15일

대구지방경찰청장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배진석(사진 오른쪽 네 번째)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도내 아동 주거 빈곤 실태 제시 “실질적 정책 수립·실천 중요”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경북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배진석 도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아동을 위한 양질의 주거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아동 주거 빈곤 정책 현황

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강병덕 한동대 교수는 ‘경북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최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 우선 주거정책의 도입 ▷주거 바우처 신설 ▷최저 주거 기본의 강행 규정화 ▷주거 빈곤 밀집 지역에 아동 생활 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 교수는 경북 실태에 맞는 빈곤 아동 주거 마련과 그에 맞는 정책, 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진 도의원과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 도의원은 “경북지역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경북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복지센터 등을 설치해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도의원도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종훈 기자 apple@maeil.com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맞춤형 사업 전환”

김병기 시의원 “서비스 차별화”

김병기 영주시의원(국민의힘, 상방동, 하방동, 영주1·2동·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각종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지역별 노인 비율은 동 지역 평균이 21~35%인 반면 면 지역 평균은 45% 이상으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원은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며 “경로당 지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환도 필



요하다”면서 “영주시 노인 맞춤 돌봄은 방문 인원과 취약 계층 노인들 간 서먹함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다. 이웃 사촌들이 말벗도 되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노인들의 거주지 인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공동급식소 운영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거동 불편 노인 자택 방문 서비스도 청년들이 직접 하도록 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대구 중남구 보선 출마 배영식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공약 발표



내년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영식 예비후보(국민의힘·사진)가 13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

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배 예비후보는 “중남구 지역 상가나 사무실에 공실이 너무 많고, 기존 상가들마저 매출이 줄어 고사 위기”라며 “시설 현대화와 가격 경쟁력, IT를 접목한 편의성 등 주변 대형 쇼핑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를 끌어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내년 지방선거 출마합니다

“영천 변화·혁신 통한 미래 비전 달성”

시장 도전 김경원 전 대구국제청장

김경원(68·사진) 전 대구지방국제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청장은 “영천은 정치도 경제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좌파 정권의 국정농단과 경제침체,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정권 교체와 함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영천을 구하고 본질적 변화를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1973년 영천의 인구는 19만2



천명, 경산은 17만5천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영천은 10만2천명, 경산은 26만8천명이다”며

“이것은 중앙의 지원을 받을 인력과 힘, 지역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정책으로 집행할 능력있는 리더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천은 전직 시장들의 미래 비전 부족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의 자긍심은 떨어졌다”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략적 사고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시민 전체를 통합 조정해 미래 비전을 달성해가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중앙과 지역에서 쌓은 행정능력과 정치력,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침체와 퇴보만을 거듭하고 있는 영천에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며 옛 영광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 전 청장은 영천 출신으로 금호초, 경대사대부설고, 영남대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와 국제청 등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선일 기자 ksi@maeil.com

“고령 도시재생·시가지 인프라 구축”

군수 도전 이남철 전 행정복지국장

이남철(62·사진) 전 고령군 행정복지국장이 내년 지방선거 고령군수로 출마표를 던졌다. 이 전 국장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사회복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금 고령은 위기다. 고령의 변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위기의 고령을 살리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령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되찾기 위해 고령군수에 도전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령에서 초, 중, 고를 나온 토박이로서 고령군에서 40여 년간 재직하고 2019년 12월 행정복지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그는 “고령의 발전과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령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고령의 기존 도심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시가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생활의 행복 서비스를 되찾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야산과 낙동강을 감싸고 흐르는 환경을 배경으로 대가야 박물관과 전시관, 6개소의 관광지, 3개소의 휴양단지, 6개소의 체험마을 등의 관광시설을 적극 활용, 사람들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령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남철 전 행정복지국장은 “고령군의 잘 조성된 6개 산업단지 내에 1천200여개 기업체와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고령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필요하다”며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아늑한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채수 기자 cslee@maeil.com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통과

칠곡군의회 우여곡절 끝에 가결

경북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군의원 간 찬반 토론과 투표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훈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칠곡군 관내 학교에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칠곡군에 소재하지 않는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교육청의 학교배정 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군의원 간 찬반 토론 후 출석 군의원 9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됐고,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가파르게 가결됐다.

당초 이 군의원은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을 지원하는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칠곡군의회에 상정했다가 내부 반대로 4개월 만에 철회했고, 이번엔 교복 구입



지난 10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칠곡군의회 제공

비 지원만 담은 조례를 재상정했다.

이창훈 군의원은 “현재 경북 지자체 14곳이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3곳은 입법예고했으며 1곳은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칠곡군도 무상교복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고려수지침강좌
수지침 배워 새해를 건강하게!

기초강좌 1월 4일(화) 오후 2시~4시
심화강좌 1월 4일(화) 저녁 7시~9시
심화심화강좌 1월 6일(목) 저녁 7시~9시
053-426-5000 · 010-2675-8782
수지침 수성지회(2호선 범어역 2번출구)

진산철학관

시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생, 병명임이 고생하는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대명역 3번 출구 / 밀사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고화질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30년 전통을 이어온 ———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훈기나는 조립식전기온돌 패널
전식온수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나이프 수명과 동일

우진산업 우진훈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만병을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아픈분)

발명특허 기술획득
저서 허리병 7일만에 완치시키는 요법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불행만 하는가?
수백 차단 하실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상담 010-3829-7582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셀모가발 010-6250-3899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중서)
(반월당 23번 출구앞)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 도시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

- ✓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인증 1호 획득
- ✓ 국내 최초 IDC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3회 수상
- ✓ 국내 최초 G20 글로벌 스마트시티 연합 가입
- ✓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37106, ITU-T)인증 획득



대구광역시

SMART CITY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지원센터



크리스마스 앞두고 올해도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

대구 합창단 나홀새 13명 확진
방역패스 대상 종교시설 빠져
다중이용시설 전파 가능성 커
경북도 일일 신규 최다 193명

대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교회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당시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30명으로 열흘 연속 세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다. 오후 8시까지 179명이 추가됐다. 경북에선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8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3명으로 종전 최다인 189명(10일 0시 기준)보다 10명이 더 많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40명, 포항 40명, 경산 15명, 안동 10명, 김천 8명 등 도내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동구 한 교회에서 지난달 30일 교인 1명이 확진된 뒤 10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74명(교회 41명, n차 33명)으로 늘었다. 지난 9일에는 기독교 관련 A합창단 단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합창단원들이 다니는 교회로 감염이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합창단원이 다닌 탈서구 한 교회에서 교인 5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A합창단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13명

(합창단 6명, n차 7명)으로 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A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30~40명이 수성구 한 연습실에 모여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확진자로 인해 노출된 교회도 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달서구 교회 1곳에서 추가 확진이 확인되면서 전체 교인 40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교회발 감염은 교인들의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때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한 교회의 경우 확진된 교인 1명이 수성구 대형학원 강사였고, 학원으로 감염이 전파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하면서 종교시설을 빠뜨린 점도 감염 확산 발미로 지적된다. 지난 6일부터 기존 5종 시설에 한해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사실상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했지만 종교시설은 제외됐다.

현행 지침상 교회 정규 예배는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임과 성가대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고 집중 완료자라면 구성원 경우 소모임은 최대 8명까지, 성가대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했다.

김자수 기자 index@maeil.com



‘방역패스’ 본격 시행 이틀째인 14일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한 시민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안성환 기자 asw0727@maeil.com

방역패스 이틀째도 ‘먹통’

앱 접속 안돼 식당·카페서 불편
“미리 점종기록 받으면 장애 줄어”

14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 A(53)씨는 식당에서 방역패스 확인에 애를 먹었다. 2차 점종을 확인할 앱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20분 가량 식사를 못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 휴대전화 앱 접속이 한참 동안 안됐다”며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방역패스 일부 앱 접속 장애가 이틀째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전날 긴급 서버 증설 조치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상은 그렇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아간에 서

버 긴급증설 작업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해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낮 12시가 가까워지면서 네이버 등 일부 앱을 통한 전자 증명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식당과 카페에선 이용자들이 방역패스 인증에 수십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구 수성구 B(45)씨는 “어제 방역패스 인증이 잘 안돼 오전 11시 40분쯤 미리 식당에서 점종확인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오 무렵 겨우 연결됐다”고 했다.

질병청은 쿠팡(COOP·전자예방접종증명서)·카카오·토스 앱 및 통신 3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인 패스(PASS) 앱을 사용해 QR체크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쿠팡은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모바일 앱으로, 네이버·카카오 앱 등에서 사용하는 QR코드와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

앱에서 처음으로 인증 이력을 불러오려면 본인 인증과 점종력 불러오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일부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한 차례 인증 이후에는 증명서가 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처음 불러올 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미리 점종기록을 앱에 받아놓으면, QR코드 생성 자체는 어렵지 않아 접속 장애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자수 기자 index@maeil.com

독자와 함께

한 아파트 편의점 3개
담배판매점 주인 ‘한숨’

50m내 영업소 입점 제한했지만
외벽간 거리 측정 모호해 불만

대구 중구의 담배소매업 허가를 둘러싸고 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씨의 편의점은 중구 수창동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있는데, 지난달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같은 상가 2층에 입점했다. A씨는 담배소매업 제한 거리인 50m 내에 새로 편의점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업 허가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교통시설, 운동경기장 등 건축물 내나 매장면적 100㎡ 이상이면 거리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중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허가 절차에 맞춰 진행한 측정에서 거리가 56m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거리 측정에는 35m가 나왔다. 갑자기 20m가 늘었다”면서 “가게와 70m 떨어진 곳에 다른 편의점도 있어 1천 가구 아파트에 편의점이 3곳이다.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은 거리측정을 위임받은 한국담배판매인회 대구조잡이 거리를 잘못 잴었다고 판단했다. 조합 역시 당시 시행규칙을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거리측정 규칙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대구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리측정은 점포간 외벽 사이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이면 1층 출입구 중앙이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A씨 편의점에서 2층 신규 편의점 외벽까지 56m, 1층 출입구 중앙까지 35m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행 규칙 중 잘못 해석될 부분이 있지만 거리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벽간 거리다. 신규 편의점 외벽까지 거리를 재야 한다”며 “A씨의 항의에 수차례 거리를 재측정했고, 법률 자문을 받아 56m 측정이 정당하다고 판정났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maeil.com

브레이크 고장? 대구 도심 3중 추돌 2명 사망

신호 기다리던 차량 들이받아
앞차 2차 추돌...2명 크게 다쳐

퇴근 시간 무렵 대구 도심에서 차량 3대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오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인근 네거리에서 BMW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고, 스포티지는 충격으로 앞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2차 추돌했다. 스포티지 운전자 부부 2명이 숨졌고, BMW와 제네시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진술

에 따르면 당시 BMW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상점의 CCTV에는 BMW 차량이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을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에는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마크’(Skid Mark)가 없었다. 브레이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는 정황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끼악하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팡’하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방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뛰어 나왔다”고 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도 BMW 운전자가 추돌 당시 속도를 크게 줄이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화섭 기자 lhsski@maeil.com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합악기백화점
주식회사 코스모스악기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번지(명덕 네거리)
COSMOSMUSIC.COM

대구지점
053) 629-8844

세계 名品 기타

세계 名品 아코디언

세계 名品 색소폰

KINGSTONE
킹스톤

Takamine
타카미네

Jose Ramirez
호세 라미네즈

PRS
폴 리드 스미스

(주)코스모스악기가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악기가 보증하는 품질 및 확실한 A/S!!

HOHNER
호너

SCANDALLI
스칸달리

Paul Soprani
파울로 소프라니

EXCELSIOR
엑셀시오

PIGINI
피지니

E-Soprani
이 소프라니

Roland
롤랜드

KINGSTONE
킹스톤



(주)코스모스악기가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아코디언센터
코스모스악기가 보증하는 품질 및 확실한 A/S!!

YANAGISAWA
야나기사와

HENRI SELMER
앙리셀머

KINGSTONE
킹스톤

부페

(주)코스모스악기가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악기가 보증하는 품질 및 확실한 A/S!!

부페



코로나에 요소수 품귀 ‘이중고’ 경북 전세버스 업계 숨통 트이나

도의회 ‘지원 대상 포함’ 조례 통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전세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사 위기에 몰렸던 전세버스 업체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섰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구 도의원 대표 발의)이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운구차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내·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업체까지만 재정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활발한 관광 수요 등으로 비교적 경영 여건이 좋았던 전세버스 업체는 지원 대상에 넣을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얼어붙으면서 단체관광, 수학여행 등이

도내 142곳 2천400여대 운용
단체 관광 끊기며 수익성 악화
법적 근거 마련에 업체들 ‘환영’

사라져 전세버스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게 됐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총 142개로, 전세버스 2천433대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요소수 품귀 사태까지 벌어져 그나마 있는 수요도 소화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업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개천절 시기 발생한 불법집회 참가자 운송을 거부하는 등 정부 방역대책에 협조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업계 지원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5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단 관련 기금을 사용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세버스 업체는 다수의 학생, 근로자 통근·통학버스 역할을 하고 매년 2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간인 만큼 재정 지원의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3일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췄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정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큰 위기가 있을 때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에 힘을 써준 경북도의회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차량 첨단화, 안전 장비 확충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고령 도로변에 ‘산더미 쓰레기’ 14일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동삼거리 인근 도로변과 수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성일민 기자 sungil@maeil.com

6개월 남았는데…칠곡군수 선거 과열 조짐

출마예상자 마이크로 본인 홍보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 받아
“지지 요청 문자 돌려” 허위신고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경북 칠곡군수 출마 예상자들의 공식선거법 위반 및 허위신고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마예상자 A씨는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두경고를 받았다.

지난 9일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아카데미’ 개강일에 찾아가 교육생들이 차례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발언을 하고 자

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교육생들에게 출마 명함을 돌린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미한 사안이라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왜관을 출신이자 주민이라고 운을 댄 뒤 도시재생에 대한 견해 및 비전 제시, 이름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교육생과 칠곡군 관계자들은 “A씨가 교육 시작 전 강의실에 찾아와 명함을 돌렸고, 스스로 ‘마이크를 가로채 미안하다’고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칠곡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칠곡군 청년아카데미에서 선거운

동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정 칠곡군수 출마예상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군선관위 측은 “‘칠곡군수 출마예상자 B씨가 특정일에 모 언론사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돌렸다’는 신고가 13일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언론사의 여론조사 계획도 없고, 신고자의 증거(문자 캡처) 제출도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하다니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 싶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제주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 발생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 규모 4.9
출발·도착 항공편 10여분간 대기

규모 4.9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제주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되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번 지진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다.

14일 제주도 기상청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9분 14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3.09도, 동경 126.16도이다.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17km로 추정했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전등을 비틀해 매달려 있는 물건이 크게 흔들리며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로 놓인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다. 규모 5는 건축물에 금이 가거나 지붕에서 기와가 밀려 떨어질 수 있고 사람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려대는 수준이다. 경

주 지진은 건물이 요동치고, 약한 구조물에 금이 가는 정도의 지진이었다.

지진이 발생하자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지진 관련 문의 전화 89통이 접수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돼 출동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 발생 당시 제주도 전역에 있는 건물들이 갑자기 ‘쿠궁’하는 소리와 함께 3~4차례 크게 흔들렸다. 지진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던 60대 여성 조모 씨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의자가 덜덜 흔들리며 떨리고, 주변에 있던 펜스가 흔들려서 덜덜덜덜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진앙 인근인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한 단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태경(47) 씨는 “8살과 11살짜리 아이는 처음 느껴보는 진동에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지진은 서귀포시뿐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서도 감지됐다.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은 지진이 감지되자 건물 밖 주차장으로 대피하는 등 제주지역 관공서 직원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서성이며 불안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제주공항에서는 활주로 점검차 제주 기점 출발·도착 항공편이 10여 분간 잠시 대기하기도 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화연(50) 씨는 “식당 냉장고가 흔들릴 정도였다”며 “냉장고가 쓰러질까 봐 노심조사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 7층에 거주 중인 황모(60·여) 씨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10초 이상 어지럽고 아파트가 통으로 흔들리는 느낌을 느꼈다”며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다”고 말했다.

제주 최고층 38층(169m) 드림타워에서도 약간의 흔들림만 있었을 뿐 별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구 경신중·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 진행

대구 경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경신중 교장 B씨와 함께 기

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련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내용을 검토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A씨는 청문에서 내년 상반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 취임

취소 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교육청 측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7일 경신교육재단 이사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오는 17일쯤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시교육청 중징계를 앞두고 이사 취임 승인 취소라는 차욕을 피하려 자진 사퇴한 카드를 내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aeil.com

Original Book&Lyrics LUC PLAMONDON
Music RICHARD COCCIANTE

NOTREDAME DE PARIS
FRENCH TOUR
노트르담드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

2021.12.10 ~ 12.26
KA
계명아트센터
문의 (주)파워포엠 053-422-4224
주최 대구 MBC
주관 (주)파워포엠
제작 mast enzo
에매 리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LPG차 운전자 “가스충전 불편 덜었어요”

경북도청 신도시 충전소 오픈

도청서 불과 2.5km 거리 위치
2023년 추가부지 분양 예정

그동안은 10km 이상 떨어진
안동·예천서 이용 불편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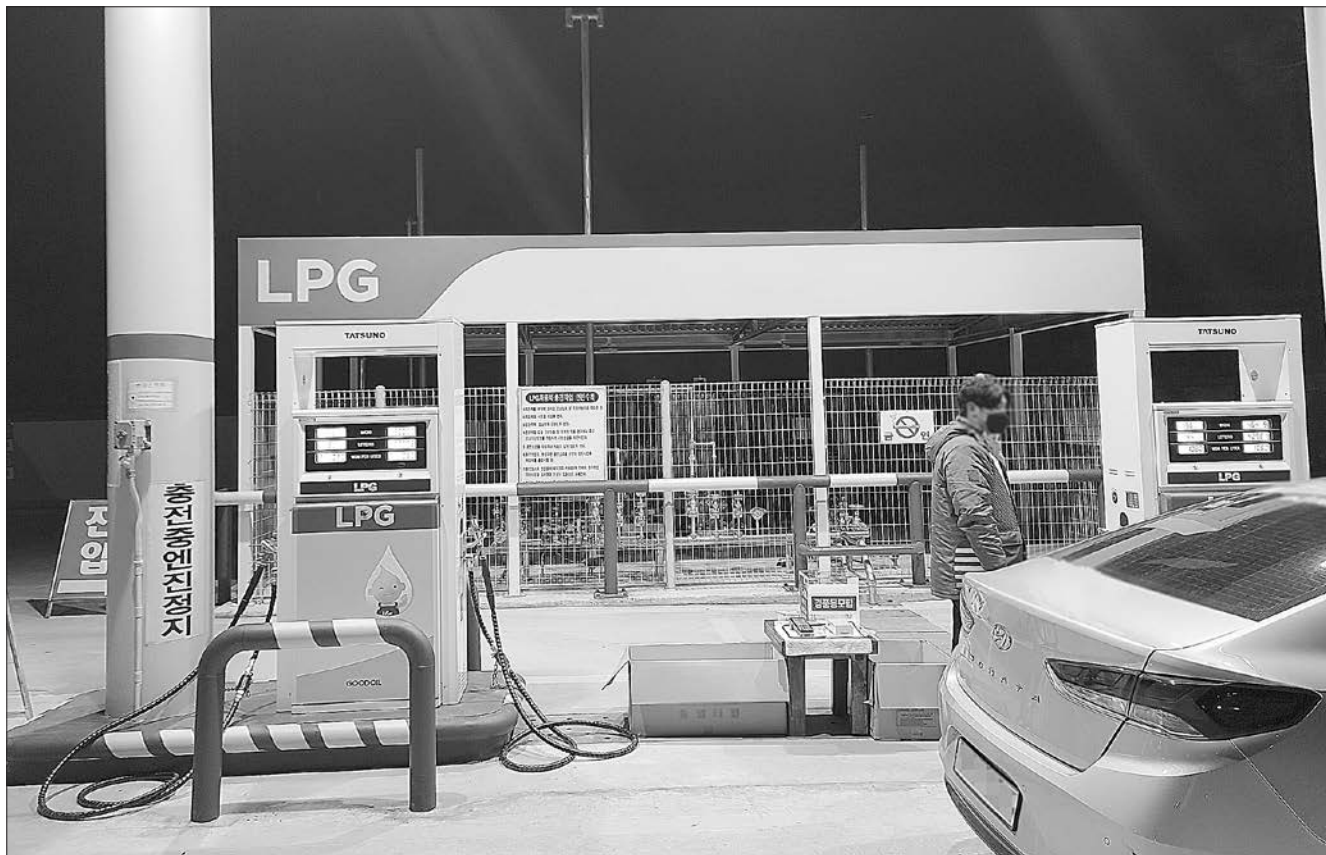
가스충전소가 없던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면서 LPG 차량 이용자들이 한껏 편리해졌다.

그동안 신도시 거주 LPG 차량 이용자들은 가스충전을 위해 예천양궁장 인근 충전소(12.63km, 11분 예상)나 예천군청 인근 충전소(16.96km, 18분 예상), 안동시 옥동 충전소(18.61km, 19분) 등 먼 거리 이용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충전소는 경북도교육청에서 도청 신도시 교차로 방면의 도청대로 변(안동시 풍산읍 도청대로 716)에 있어 경북도청과 불과 2.5km(3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다.

앞서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스충전소가 없어 업무차 외부에서 방문한 LPG 차량 운전자 중에는 인터넷 지도를 검색해 충전소를 찾다가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 가스충전소를 찾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특히 LPG 차량은 연료가 떨어져 가입한 보험사에 ‘긴급 연료보충 서비스’를 신청해도 현장 연료보충 대상이 아니어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가야 하는 실정이었다. 휴대용 부탄가스 충전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고, 차량에 평소 휴대용 부탄



경북도청 신도시 도청대로 변에 위치한 가스충전소의 모습. 그동안 신도시 내 LPG 차량 운전자들은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10여 km 떨어진 예천군과 안동시 도심지 충전소를 찾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영진 기자

가스를 싣고 다녀야 하는 안전문제도 발생했다.

당초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지에는 3곳의 주유소 부지가 분양됐고 2곳만 계약이 완료됐다. 부지 2곳 중 한 곳에는 일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동시에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충전소 건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다. 경북교육청 인근에 계약 해지된 1곳의 주유소 터는 입찰이 진행 중인데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청 인근에 LPG 충전소가 문을 연 것은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한 LPG 차량 운전자는 “그동안 운전을 할 때면 연료 게이지만 수시로 확인해야 해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불필요하게 먼 곳까지 가서 충전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불편을 조금 덜었다”며 “새롭게 문을 연 충전소도 도청대로변 한쪽 방면에 있어 조금 돌아와야 하는 점은 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신도시 내에도

충전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에 따라 취급연료가 달라 그동안 유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023년쯤 2단계 사업지 내에 주유소 부지 1곳이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불편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기자 solive@maeil.com

봉화군 “이젠 원스톱 민원 처리”

지상 2층 청사 증축 공사 완공
녹색환경과 등 본청사 돌아와

경북 봉화군이 부족한 청사 공간 문제를 해결했다. 그동안 청사를 떠나 인근 폐교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녹색환경과와 전원농촌개발과가 최근 청사 증축공사가 완공돼 본청으로 돌아왔다.

봉화군은 지난 2018년 조직개편과 직원수 증가로 사무 공간이 협소하자 녹색환경과와 전원농촌개발과를 폐교된 인근 봉화여중·고 건물로 이전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군청사를 찾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보느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봉화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기존 청사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17㎡ 규모에 사무실 2개와 중회의실 등이 들어



봉화군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한 청사사 전경. 봉화군 제공

서는 증축공사를 했다.

정규하 녹색환경과장은 “그동안 외부 청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새로운 청사에서 원스톱 민원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이병환 상주군수와 군의원, 벽진면 주민 등이 성주군청 뒤 고목나무 옆으로 추가 개설된 차로를 지나는 차량에 손인사를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청 뒤 ‘벽진면 통로’ 왕복 2차로 개통

고목나무 우회 1개 차로 개설

“통행하기가 편해졌고, 무엇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해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반백년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경북 성주군청 뒤 벽진면으로 통하는 도로 이용객들이 크게 반색했다. 그동안 일부 도로구간 차로가 하나밖에 없어 불편했는데, 왕복차로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도로 개선을 지속 건의해 온 최정환 벽진면 이장상록회장은 “양방향 차로 확보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해소됐다”며 성주군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 도로는 1972년 쯤 2차로로 확장됐지만 군청 뒤 경산2리 고아터마을 앞

30여m 구간은 고목나무(회화나무)가 한 차로를 차지하는 바람에 차로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까지 오가는 차들은 서로 기다렸다 통행했다.

이처럼 고목나무로 인해 차량교통이 안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 불편했지만 이 나무를 옮기지 못했다. 고목나무 이전 작업에 동원된 사람이나 장비에서 각종 사고가 생긴다는 등 소문들이 나돌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주군은 기술적 유연성을 발휘해 고목나무는 그대로 두면서 2차로를 구현했다. 현재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 위치를 조정해 고목나무를 우회하는 1개 차로를 추가 개설했고, 최근 개통했다. 이영욱 기자 hello@maeil.com

안동 하회마을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도전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
3년간 26억 투입 인프라 구축
태양광·풍력 자립률 50% 달성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이 사용 전력의 50%를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단위 마

이크로 그리드 실증 기술개발(생활·문화 공동체형)’ 과제에 선정됐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융합·복합된 차세대 전력체계를 말한다. 탄소중립의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도는 관련 기업, 조합, 대학,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간 2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안동 하회마을에 신재생에너지 2종(태양광 344kW, 풍력 4kW)을 설치해 에너지자립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260kW급)를 구축해 잉여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등 통합운영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 200가구에 공유태양광을 1kW씩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기차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주민에게 배분할 예정

이다.

가구별 연간 16만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전기차충전소가 추가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관광객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 분산에너지 실증을 통해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최적의 전력거래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수소연료전지산업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진, 그린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pyc@maeil.com

“짐은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소원이요”

‘2021 신라 왕의 길 - 문무대왕 새로운 신라를 열다’ 무료 배부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월지와 동궁을 만든 주인공,
통일신라 수성의 토대를 다지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진정한 지도자,
문무대왕을 책으로 만나다

책자 신청

매일신문 홈페이지 ‘2021 신라 왕의 길 책자 신청’ 배너 / QR코드

010-6672-1424(문자 전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Information

문무대왕과 관련된
경주의 역사 유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강원삼삼이 강원도에서 건강을 보내드립니다.

강원삼삼코리아

검색

지금 꼭 필요한 면역력!

고혈압, 당뇨, 남성력강화, 원기회복, 온가족 면역력 UP!!!

5~6년근 옛날 산양삼

청정지역 강원도의 힘! 최소 5년근 이상 30뿌리

옛날 30뿌리 99,000원

올해 마지막 상상초월 초특가 파격할인! 500세트 한정



옛날 산양삼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산양삼의 사포닌 성분으로 각종 바이러스 및 각종 질환 등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특히 남성력 강화, 활력 강화에 산양삼이 좋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산양삼은 면역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0% 국내산 강원도 산양삼이 아니면 100배 보상해 드립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최고의 옛날 산양삼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가 공인 기관에서 품질 검사

산양삼이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은 산양삼속의 성분 중 사포닌 때문인데 예전에는 사포닌의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해 왔지만

최근의 연구 등으로 밝혀진 사포닌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인체에 여러가지 방면으로 긍정적인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몸을 보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산양삼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을 보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요즘같이 면역력이 강조될 때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데 이럴 때 산양삼이 보양식으로 으뜸이라고 한다. 토양 좋고 물 좋은 곳에 좋은 품종의 산양삼을 농약이나 인위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산양삼을 재배하여 영양 성분이 높고 신선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산양삼을 섭취할 때에는 물어있는 흙을 제거한 후 뿌리부터 줄기, 잎 순으로



인공 시설물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만으로

오래 씹어서 섭취하면 된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산양삼을 섭취하면 명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몸에 열이 나거나 깊은 잠에 빠지

거나 반대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술에 취한 듯 몽롱하고 어지럽고 몸이 뜨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심한 경우 몸살 기운이 돌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산양삼이 몸에 흡수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농협계좌: 033-900-5033-008
예금주: 농업회사법인 강원삼삼

구입문의

033-900-0339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DGB Index (14일)

코스피 2,987.95 (-13.71P)

코스닥 1002.81 (-3.15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784 (-0.006P)

환율 (원·달러) 1,182.60 (+1.80원)

금값 (1g) 68,380 (-8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특별한 상품생성시점 등에 따라 일부 서비스, 기간 제한 등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9050 / 1588-9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21-151호 (2021.04.01~ 2022.03.31)

"한발 빠른 뉴스"

인도이드증권

매일신문앱

아이폰용

치맥페스티벌 브랜드화, 100년 축제로 준비한다

치맥페 10주년 앞두고 마케팅 박차
코로나로 2년 연속 대회 취소
세계적 행사 거듭날 전략 모색
이달 온·오프라인 콘텐츠 공개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 대구치맥페 스타빌(이하 치맥페)이 100년 축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본격화한다. 지난 2013년 두류공원에서 처음 시작한 치맥페는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축제로 주가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대회가 취소됐다. 얼굴을 맞대고 치킨과 맥주를 먹는 축제 특성상 취소가 불가피했으나, 타격은 뼈아팠다. 한국치맥산업협회는 이 같은 치맥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화'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970~1980년대부터 대구경북은 전국 규모의 부화장 1곳과 도계장 4곳이 있을 정도로 양계산업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맥시칸치킨, 페리카나, 교촌치킨 등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3년 지역의 닭고기 관련 업체들이 치맥페를 기획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안전사고를 염려했다. 술이 축제 소재가

되니 당연한 걱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7월 첫 치맥페가 열렸고, 4일간 27만명이 찾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2015년에는 치맥페를 담당하는 민간 단체인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행사는 더욱 체계화됐다. 개최 4년 만인 2016년 관람객 100만명을 달성하며 대구 대표 축제로 성장했고, 2019년에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며 짧은 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치맥페 성장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8~2019년 치맥페 기간 중 치킨업종 일평균 매출은 평소 대비 66% 증가했다. 2019년 치맥페의 생산 유발효과는 24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0억원으로 추산됐다.

치맥페는 그간 ▷야외 주류·음식물 판매 합법화 ▷친환경 맥주집 제공 ▷두류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치맥 리더스 발족 ▷음원·굿즈 등 독자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치맥 페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한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날씨 변수를 이겨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또 대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축제 특성이 감염병과 같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하세요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사전 예약 할인 판매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치맥산업협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맥페의 독특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방법은 '치맥페는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슬로건으로 치맥페 자체를 하나의 브

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치맥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청년문화에 스며들고,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협회는 이달 중 브랜딩 전략사업을 통해 제작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치맥산업협회 관계자는 "누구나 하는 뻔한 온라인 축제를 넘어 치맥페의 아이덴티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브랜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치맥페를 경제와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100년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금리 인상에 물가 상승...기업 채산성 확보 비상

한경연 이자비용 13조5천억 ↑ 전망
매출액순이익률도 0.29%P 하락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채산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업 이자비용이 13조5천억원 증가하고, 매출액순이익률은 0.29%포인트(P) 하락해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기업 대출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2분기 이후 0.5%

를 유지했지만,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0.25% 인상돼 현재 1.0% 수준이다. 또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이 2010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기업 대출금리는 1.03%P 오르고,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이 1%P 상승하면 기업 대출금리는 0.3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4%)에서 2015~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을 빼 기대인플레이션을 변화폭을 1.3%P로 추

산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0.5%P 인상에 따른 0.52%P에 기대인플레이션을 1.3%P 상승으로 인한 0.43%P를 더해 총 0.95%P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대출금리가 0.95%P 상승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연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0.2%P, 비제조업이 0.4%P 각각 감소해 비제조업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1.93%P),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0.96%P), 기타 개인서비스(-0.92%P), 숙박·음식(-0.79%P) 등이었다. 연합뉴스

美 통화긴축 전망...코스피 3000선 반납

사흘 연속 하락 2,987.95 마감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해 3,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1포인트(0.46%) 내린 2,987.9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1포인트(0.59%) 내린 2,983.95에 출발해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증가 기준 3,000선 하회는 지난 7월(2,991.72)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605억원, 1천990억원을 순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천131억원을 순매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우려도 재부상에 변수로 떠올랐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첫 오미크

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가 커지고, 오미크론 확산 불확실성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경기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5포인트(0.31%) 내린 1,002.81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5포인트(0.48%) 내린 1,001.11로 출발한 후 등락하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를 굳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28억원, 77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 45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매물을 받아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9조7천918억원, 10조1천822억원 수준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182.6원에 마감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aeil.com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보상" 대선후보들 만나 추경 촉구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윤 후보가 코로나19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했고,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 추경 예산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된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두 후보에게 자영업자 부채 해결책, 손실보상 보완책,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두 후보 캠프를 방문해 관련 토론회 제안서도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2013년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전영역 'A등급' 교육부
- 2012~15년 4년 연속 사이버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교육부
- 2016~19년 4년 연속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2018년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 교육부
- 2020년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 선정 교육부
- 2021년 DNA 융합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 선정 교육부



YEUNGJIN
CYBER UNIVERSITY

재취업 온라인 사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자세한 지원자격, 모집전형, 원서접수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

모집
일정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1일 (1차)
2022년 1월 21일 ~ 2022년 2월 16일 (2차)

입학
안내

대구본교 1588-9605 / 서울캠퍼스 02-779-5900

모집
학과

사회복지계열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메카트로닉스학과 | 산업경영학과
부동산학과 | 노인복지학과 | 글로벌실용영어학과 | 상담심리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 뷰티케어학과 | 아동복지학과

국가장학
신청안내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2022년 신·편입학 지원
- 신청일정 : 2021년 11월 ~ (한국장학재단, 영진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www.kosaf.go.kr(한국장학재단) 인터넷 신청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8분위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영진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053-940-5733

8천가구 신흥 주거타운…교통·쇼핑·문화 多 누린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 인근에 쇼핑몰·전통시장
첨단 IoT 적용 ‘스마트 라이프’

1458가구 전분주택 17일 공개
21일 1순위 청약, 29일 발표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이종원)은 대구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2구역에 들어서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전분주택을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해당) 21일, 1순위(기타) 22일, 2순위 23일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은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체결할 예정이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에 총 1천458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일반분양분은 952가구가다. 전용면적 39㎡, 59㎡, 75㎡ 84㎡A, 84㎡B, 111㎡로 구성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대구 동구 신암 1동과 신암 4동 일대 76만 6천718㎡ 부지 규모로, 6개의 재개발과 1개의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동대구 역세권을 중심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조감도.

화성산업 제공

으로 약 8천여가구에 달하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도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이 들어서는 신암2구역은 뛰어난 교통환경과 단지 안팎의 쾌적한 공원을 품은 입지를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 대표 쇼핑·문화공간인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아쿠아리움, 메가박스(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단지 주변으로 파티마병원, 동구청, 평화시장, 이마트 만촌점, 현대시티 아울렛 등도

가깝다.

신성초를 비롯해 경북대학교와 동부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또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대구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KTX/SRT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통한 시외 접근성이 좋으며 동대구로와 아양로도 가깝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에는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시스템을 적용한다. 세대내에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와 연계한 홈네트워크(IoT@home)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했다.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필터링 할 수 있는 헤파 필터와 내부 순환 공기 정정 기능을 추가했다.

더욱 강화된 보안시스템으로 입주민의 적정도 떨어준다. 놀이터와 공동현관 등에는 200만화소, 지하주차장에는 1천200만화소의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으로

지하층·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지하주차장에는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공동전기로 부담을 줄여주며, 세대 내외부 및 지하주차장 모두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대구 역세권에 잘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도심공원을 끼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더해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aeil.com

도시철 1호선 초역세권…대구도서관 개관 호재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실수요자 선호 84㎡ 단일면적
4개동 831가구 이달 중 분양

‘골드클래스’ 주택 브랜드의 보광종합건설(주)이 ‘수성 골드클래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에 이어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을 12월 중 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 157-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47층 4개동, 831가구 규모(공동주택 660가구, 오피스텔 171실)다.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까지 모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했다.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과 직선거리 115m 정도의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이 2개 정거장 떨어져 있고,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은 3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단지 바로 옆 옛 캠퍼워 헬기장 자리에는 오는 2024년 대구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도서관은 대지면적 1만4천953㎡에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818억원을 투입하는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앞산의 숲세권과 신천변 수세권 입지도 갖췄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신천의 1급수 수질 확보와 공원·습지

등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천66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아쇼핑, 동성로 및 반월당상권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동쪽으로 봉덕시장과 대백프라자도 지척이다.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영대병원 네거리를 중심으로 10개 단지 7천여가구 가까운 브랜드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공급한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럴’ (975가구)은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올 초 공급한 ‘힐스테이트 대명(1천089가구)’과 후분양으로 진행 예정인 현대건설 주상복합(351가구)은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에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조감도.

보광종합건설 제공

럴(831가구)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2차(891가구 예정) 대명동 E지구(444가구 예정) 대명동 B지구(1

천223가구 예정) 영대병원 남측(731가구 예정) 대구도서관 북측(294가구 예정) 등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상준 기자

대구경북 관심 공매 물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대지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88-2

▷관리번호 : 2020-09922-002

▷내용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소재 ‘영덕경찰서’ 복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규모 : 토지 429㎡

▷감정가액 : 금 135,993,000원

▷최저입찰가격 : 금 135,993,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아파트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731경산선화청구타운 103동 1**호

▷관리번호 : 2020-15818-001

▷내용 :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동자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노선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단지 진입로에 접하고 있는 포장도로를 통해 간선도로인 ‘대화로’ ‘공단로’ ‘다문로’ ‘대경로’ 등과 연계가 가능함.

▷규모 : 토지 30.06㎡, 건물 59.91㎡

▷감정가액 : 금 78,000,000원

▷최저입찰가격 : 금 78,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경본부

힘내라 대구경북!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선두주자 - 성심요양병원

저희 **성심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및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요양병원

문의
대구 남구 대명동 1126-1, 1호선 성당역 1번출구
Tel : 053-657-2111~20

M MEDICAL 의료

발기부전 수술치료

정석진 원장 예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윤재식 원장 예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권영기 원장 예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박창현 원장 예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	--	--	--

음경보형물:남성 임플란트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정상 발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수술을 통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발기를 유도하여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수술로 동맥경화증, 당뇨병, 척추손상, 신경계질환, 골반장기 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질적 중증 발기부전 환자 및 일차적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는 심인성 발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 환자 연령이나 질환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 가능하며 사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음경보형물은 한번 시술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경의 크기와 모양, 기구 작동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형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골곡형은 평소에는 구부러 두었다가 사용

시에는 길게 펴서 발기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보형물의 고장이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 하지만 길이와 굵기가 더 이상 커지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조각식 팽창형은 자연 발기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형물로 음낭 내에 작은 펌프를 작동시키면 저장고에 들어 있던 액체가 음경해면체에 삽입되어 있는 실린더로 이동하여 서서히 발기가 이루어진다. 3-조각식 팽창형은 발기시 음경 강직도, 음경둘레 증가, 발기상태의 자연스러움 등으로 인해 환자만족도가 높은 보형물이다.

음경보형물은 한번 시술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발기시킬 수 있고, 원하는 시간만큼 발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발기시키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수술한 표시가 거의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반신 마취로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통증, 감염 등이 있으며, 보형물이 삽입된 후에는 자연발기능력이 완전히 소실되므로 마지막 치료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예스연합비뇨기과의원
서부점: 053)626-7766
북구점: 053)941-7766
심약빌 제120424-층-27121호

끝나기는 할까...더 깊어진 코로나블루

새 변이 오미크론 대유행 팬데믹 종식 기대 사라져

NYT “일상회복 좌절 반복 시민들 정신적 피로 호소”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대유행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세계인의 우울과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우울이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다.

NYT가 만난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 등지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공통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정부 방역정책이 느슨해졌다가 조여지는 일이 이어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과 좌절도 되풀이되는 데 대한 정신적 피로를 호소했다.

영국에선 대유행 이후 집단면역 정책과 봉쇄를 오가다가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채택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 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규제가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같이 새 변이가 계속 출현해 모든 계획이 잠정적인 것이 되고 미래 계획이 불가능해지자 불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케냐에서는 지난 10월 확산세가 줄어들어 봉쇄 조치를 해제해 술집 출입이



성탄 분위기...모스크바 북극곰 조형물

성탄절과 새해 맞이를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된 북극곰 조형물 앞으로 13일(현지시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허용되고 극장과 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자 케냐 당국은 새로운 봉쇄 조치를 예고하면서 접종 완료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데도 미접종자의 사무실 출근을 금지했다.

NYT는 국제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해 응집된 대응을 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출

현으로 여러 국가가 사회적 이동을 제한하는 와중에도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감한 브라질에선 내년 카니발 축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등 국가별 상황과 대응은 제각각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내부적으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지 의견이 나뉘며 각국의 개별 정책도 서로 다르다.

팬데믹 시기 각국 정부가 시중에 풀

유동성으로 금융시장 활황기를 맞아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지는데 투자할 자본이 없는 이는 더 빈곤해지는 상황이 나타나 음모론도 만연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탈리아 심리학협회장인 다비드 라차리는 최근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이 발생할 확률이 대유행 이후 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韓美 방어시스템 약화 지향”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개

“KN-15 일본 본토 타격할 능력 KN-24 韓美 자산에 중대 위협”

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시스템 약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CRS는 이날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발전은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등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할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CRS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 중거리탄도미사일인 KN-15, 정밀유도 전략 무기인

KN-24, KN-25 등을 나열하며 이런 분석을 전했다.

CRS는 “이들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보여주고 비행 중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징은 북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달성을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무력의 신뢰성과 효과·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CRS는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연장 로켓시스템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봤다. 북극성-2호로 알려진 KN-15는 북한의 역대 적대세력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일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북한 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는 한반도의 한국과 미국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해상 7.3 강진

쓰나미 조기 경보 발령 뒤 해제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플로레스섬 북부 해상에서 14일 오전 11시20분(현지시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동부누사틍가라주 마우메레(Maumere)에서 북쪽으로 112km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8.5km다. 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7.6으로 발표했다가 7.3으로 낮췄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도 이번 지진의 규모를 7.5, 진원의 깊이를 10km로 발표했다가 규모를 7.4로 낮췄다.

강진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는 규모 5.1의 여진도 발생했다.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되자 플로레스섬과 술라웨시섬 등 진앙 주변 해안가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고지대로 향했다. 지진은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등에서도 느껴졌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주민



들은 차량·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높은 곳으로 향했다. 한 주민은 “30초 정도 강력한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높은 곳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 16분 뒤와 19분 뒤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가 마을 2곳에서 7cm 높이 쓰나미가 관측됐으나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당국은 강진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쓰나미 조기 경보를 해제했다. 현재까지 강진에 따른 건물 파손이나 인명 피해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베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방송 출연해 또 중국 자극 발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 ‘심층뉴스’에 출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열도 가장 남서쪽에 있는 오키나와(與那國島)와 대만이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여기에서의 유사(有事·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사태)는 (안전보장 관련법



에 따른) ‘중요영향 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중요영향사태 때 자위대는 다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이가 그는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한 ‘존립 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타임 ‘올해의 인물’

누리꾼은 “최악의 인물” 비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다. 머스크는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테슬라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었고,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을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궤도를 도는 우주관광에 성공했다.

머스크는 좌충우돌 연행으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막강한 팬덤



의 구축과 더불어 ‘입방정’으로 표현되곤 하는 그의 가벼운 트윗에 가상화폐와 밈 주식(Meme Stock·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 출렁거렸다. 머스크가 올해의 인물로 뽑히자 온라인 공간에서도 진보적 성향의 누리꾼들이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창피하다”는 반응을 올렸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에어컨, 냉난방기, 온풍기, 제습기, 이동식에어컨 전품목 도매가격 판매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캐리어에어컨

올겨울에도 전기료 걱정 없는

“캐리어 에코그린

인버터 냉난방기”가 정답입니다.

에어로 18단 에어컨 / 제트 18단 에어컨

냉난방기 라인업

자연기습·명품 공기청정기 / '미니' 공기청정기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스템

12월 고객 사은 할인판매 방문 상담시특별 할인가 적용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캐리어에어컨

대구 보성총판

창고형 매장 : 대구 서구 이현동 42-578

상담전화 053-566-8016

평생 끝날것 같지 않은 알레르기 완전 정복!

건강 플러스 +

알레르겐 면역치료

“완치될 수 있나요?”, “약을 끊을 수 있나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만성 알레르기 질환은 평생 지속되는 만성 염증 질환이다.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는 늘상 되풀이되는 아픔에다 때맞춰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진저리를 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간혹 증상과의 연관성이 확실한 알레르기 염증의 원인 물질, 즉 ‘알레르겐’ (allergen)이 확인될 경우에는 병의 경과를 바꾸고, 약을 끊고, 완치를 노려볼 수 있다. 바로 ‘알레르겐 면역치료법’ (Allergen Immunotherapy)을 통해서다.

해롭지 않은 외부물질임에도 특정인에서 과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부른다. 알레르겐 면역요법이란 확인된 원인물질을 아주 적은 용량부터 적절한 치료 간격을 두고 조금씩 양을 증가시켜 투여하면서 과민한 면역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 반응 상태를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인과 연관성 확인이 먼저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알레르겐을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약물, 음식, 벌독 등과 같이 평상시에 접할 일이 없다가 갑자기 노출돼 두드러기, 혈관부종 및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겐이 있다.

이러한 원인 물질을 찾아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면 일상생활에도 흔히 노출되는 물질에 알레르기 발생의 원인이 있다면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있다.

박한기 철곡경북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회피 불가능한 알레르겐에 접촉되는 부위에 지속적인 알레르기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피부와 호흡기에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이 가장 흔하게 면역치료를 고려하는 알레르겐으로, 바퀴벌레, 곰팡이 등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원인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환자가 어떤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또는 MAST검사라고 불리는 알레르겐 혈액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박 교수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알레르겐 면역치료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콧물, 코막힘, 눈이나 코의 가려움증,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쉼쉼거림, 가슴 답답함, 피부 가려움증, 피부 습진 등과 같은 증상이 한 달 이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알레르겐검사에 강한 양성반응이 확인과 더불어 이로 인한 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아 집먼지 진드기가 많을 수 있는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꽃가루의 경우 해당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악화되는지, 동물털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시점과 증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다.



**무해한 외부물질 과도한 면역 반응
집먼지 진드기·꽃가루 등 일상 지장
증상 한 달 이상 반복될 경우 권장**

**혈액검사로 원인 물질 정확히 파악
주사·약 복용 3~5년이면 완치 가능
오랜 기간 치료 이어갈 의지 강해야**

박 교수는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치료이므로 규칙적인 치료가 어렵거나, 간단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쉽게 호전되는 경증 증상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3~5년 꾸준한 치료만이 효과 거둬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레르겐 면역치료의 방법으로는 피하면역치료방법과 설하면역치료방법이 있다.

피하면역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게 단점이지만, 효과가 좋고, 다양한 원인물질에 대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하면역치료는 약을 혀 밑에 넣어주는 치료방법으로 경구용 약처럼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복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제때 투약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또 피하면역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며 집먼지 진드기 이외

의 항원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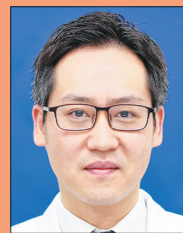
피하면역치료와 피내면역치료 모두 초기치료기간과 유지치료 기간으로 나눠 치료하게 된다. 유지 치료기간은 보통 3~5년을 지속한다.

박 교수는 “피하면역치료의 경우 초기치료기간은 목적하는 용량까지 알레르겐 투여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통은 1주 간격으로 12차례에 걸쳐 조금씩 용량을 증량해 주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가능해 환자의 상태나 스케줄이 따라 조정 가능하며, 이후 유지 요법은 한 달에 한 번 피하주사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난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운 증상이 있다. 대부분은 가벼운 정도로 하루 정도면 사라진다. 드물게는 심한 국소 통증, 부어오름이 수일간 지속될 수 있고, 경구 항히스타민제, 항류코트리엔제 등을 예방약으로 복용할 경우 예방 가능하다. 가장 심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30분가량 관찰이 필요하다.

알레르겐 면역치료를 결심했다면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박 교수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치료이므로 장시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치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효과는 치료 시작 이후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인데다 초기요법 과정에서 비염이나 천식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한다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한기 철곡경북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한윤조 기자 hanyunjo@maeil.com



뷰티클리닉

이중턱이 고민이라면

몸 곳곳에는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면서 유독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위가 있다. 얼굴에서는 바로 그런 부위가 ‘이중턱’이라고 불리는 턱밑 부분이다.

두턱이라고도 불리는 이중턱은 얼굴 윤곽이 변해 처진 것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데다 인상마저 좋지 않게 만든다.

이중턱을 없애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 흡입과 같은 수술적 치료법이나 리프팅 시술, 주사 시술 등이 있다. 이 중 수술적 치료법은 아무래도 선풍적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보니,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주사 시술이나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많이 고려하는 추세이다.

최근 이중턱 개선하는 방법으로 디옥시콜산(deoxycholic acid)성분을 사용하는 ‘브이올렛’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만큼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뜻이다.

수년전 디옥시콜산 성분으로 이뤄진 ‘벨카이라’라는 제품이 수입됐던 적이 있었지만, 약물 비용이 너무 비싸 널리 사용되지 못하다 결국 국내에서는 철수했다.

수술적 치료법의 경우 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쭈글거리거나 처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사요법은 약물로 인한 염증반응으로 지방세포가 파괴되는 동시에 콜라겐 생성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턱선이 달라붙는 효과가 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있고, 피부가 처진 이들에게서 만족도가 더욱 높다. 시술 후 힘든 다이어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얼굴 살이 빠져 보이고 얼굴윤곽을 다듬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

주사요법은 일반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3~5회 정도 시술을 진행하며, 심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술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시술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안 상으로도 이중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포 주변에서 염증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시술 후 멍이나 부기,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런 후유증이 부담될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의 병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 리프팅은 고집속 초음파를 피부의 지방층에 조사해 초음파가 모이는 곳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60도까지 올려 그 주변의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다. 주사요법에 비해서 통증과 부기가 덜한 것이 장점이다.

지방이 녹은 이후에 콜라겐을 생성시켜 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주파 리프팅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시술 또한 3~5회 이상의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

이광준 클리닉피부과 대구범어점 원장



의 상 醫窓

제야의 종

2021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소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고 무겁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올 한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 불가능한 한해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옆친 데 옆친 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발표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약 50개 부분에서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인체와 결합하는 부위인

스파이크(S) 유전자 단백질에서 30개 이상의 변이가 확인됐는데, 여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부분에서의 변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5~6배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은 다시 봉쇄와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필자가 참석한 한 학술모임에서 지역의 모 의대교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의대생의 자존감과 학력 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대다수의 의대생이 자존감과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학생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친구나 교수와의 대화도 원활하게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대학마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 가장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는 이면에는 고 3학생들이 2년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 양극화와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이것은 향후 우리사회의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래 ‘제야의 종’은 중생들의 백팔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각 사찰에서 108번의 타종을 하던 불교식 행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제야 또는 제석은 설날 그믐날 밤 어둠을 걷어내는 것,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제야의 종이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29년 특별기획으로 정초에 ‘제야의 종

소리’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이 시초였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시작해 새해맞이 행사로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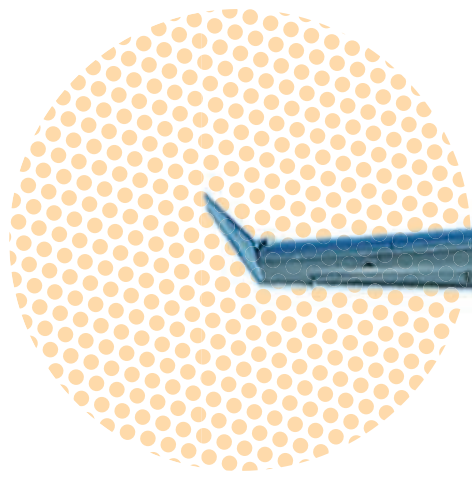
‘제야의 종 타종’은 우리나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텔레비전으로 시청한다. 올 한 해도 국민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 모든 국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교석봉 대구가톨릭병원 산부인과 교수



통합신공항 에어포트시티 조성 개발전략 토론회

이미 시작된 대구·경북의 변화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갈
통합신공항과 에어포트시티의 미래가
함께하는 소통과 상생으로 더 밝아집니다.



일시 2021. **12.16.**(목) **14:00~16:30**

장소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공연장

주 제 발 표

김준영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 에어포트시티 개념(유형·기능)과 개발 필요성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에어포트시티 조성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사전준비 사항

지 정 토 론

김한용 (주)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

허태성 (주)유신부사장

류일영 (주)무영건축 공항담당 고문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정인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동관 매일신문 신문국장

오랜 친구 달처럼, 탐스럽게 찬란하게

내 멋대로 그림 읽기

권유미 작 ‘2021-69 상원 (上元) 100호F- 162.2130.3’
혼합재료, 순금 2021년

백자 달항아리를 볼 때마다 희다 흰 자태와 원융무애한 형태가 주는 강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느낌은 단순한 형태에서 오는 절제된 조형미와 더불어 어머니 품같은 포근함과 넉넉함의 기억을 꼬집어내게 한다. 아마 이런 까닭에 많은 사진가, 미술가가 달항아리를 오브제로 삼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권유미의 이 작품은 사진이 아니다. 엄연한 회화다.

작가의 작업 과정을 보면, 금박으로 달항아리를 작업할 때 모델링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에 붓으로 터치하면서 작가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화면이 모두 마르고 난 후 금색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그 위에 바니쉬(광택이 있는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도료)를 발라서 살짝 말린 뒤 가로·세로 각각 3cm 크기의 순금 금박을 붙인다. 이때 붓으로 표현된 물성 탓에 금박이 갈라지고 구멍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박 부치는 것을 3, 4겹으로 올리고 불이기를 반복해 완성한다.

“나의 작업은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를 소재로 자개와 금박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로 황금빛 찬란한 달항아리는 표면에 거친 붓의 흔적을 보이면서 단순한 달항아리의 재현을 넘어 일렁이는 달빛을

담은 작가적 에너지 흐름의 장(場)을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은 말했다.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라고. 아득히 먼 옛날 인류의 조상이 인지력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달은 그들이 대면한 가장 밝은 오브제였다. 낮 동안의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었지만, 달은 예외적으로 천 번 만 번 이지러지면서도 그 둥근 형식은 여전히 항아리처럼 등실 떠올라 많은 호모 사피엔스들의 눈에 각인됐을 것이다.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 소재로 자개·금박 오브제 통해 재해석 황금빛의 찬연한 보름달 형상화 거친 붓으로 일렁이는 달빛 그려

인식의 기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주체와 개체라는 이항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단조로서 호모 사피엔스의 눈에 들어온 달은 수많은 뇌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지식의 씨앗’이 됐거나 혹은 ‘감성의 첫 일렁임’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어쩌면 달은 인류 문명의 땅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 하나의 달이 수없이 많은 강을 비추듯 황금빛 찬연한 보름달은 지구로, 지구로 향해 문명의 빛을 뿌렸으리라.

권유미가 달항아리 형상에 이전의 소재였던 자개를 쓰지 않고 굳이 비싼 금박을 사용하게 된 이유도 항아리로부터 달의 형상을 추론해줄지 바라는 바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미적 감수성이 예민한 작가들은 삶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더듬이를 가진 존재들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본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학의 재료가 삶의 시간적 선(線)이라면 미술의 재료는 삶의 공간적 면(面)이다. 그 면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화가의 역할이며 작품의 수준은 그 단면을 얼마

만큼 입체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권유미는 금빛 달항아리를 화면에 그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태곳적 원시인의 눈에 들어왔던 달의 영상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달은 한치 앞을 모르는 실존적 불안감 속에서 삶을 지탱하게 한 친구이자 기도처였다.

아! 오늘 밤엔 천공에 뜬 옛 친구, 달을 만나보아겠다. 우문기 기자 pody2@imaeil.com

바다가 산처럼 산은 파도처럼 ‘물결’

자연 패턴 표현하는 주기중 사진전 대구인터볼고 갤러리서 30일까지

자연은 늘 일정 규칙에 따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패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예술의 핵심은 자연일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적인 예술행위가 된다.

산수화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는 사진가 주기중이 대구인터볼고 갤러리에서 사진전 ‘Patterns in Nature’전을 열고 있다.

주기중은 자연의 패턴에 주목,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산과 바다, 사막과 설원 등

서로 다른 자연을 ‘Wave’라는 유체 패턴으로 연결시키며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준다. ‘Wave’는 자연에서 보는 기(氣)의 흐름이자 에너지의 형태다.

“일상에 지치고 마음이 울적할 때 자연을 찾는 것은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연의 섭리,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이다.”

작가는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모습을 사진 고유의 ‘장노출’ 기법으로 산에 운해(雲海)가 드리워진 것처럼 포착해 바다가 산처럼, 산이 파도처럼 물결치게 보이게 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지난 3년간 태



주기중 작 ‘wave project East sea 04’ 2020년

풍이 오거나 풍랑주의보가 일 때마다 부산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따라 지형을 관찰하며 사진작업을 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장면을 2~10분 동안 조리개를 열어두는 장노출 기법을 통해, 시간이 농축된 작가의 사진은 수목담채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전시는 30일(목)까지.

우문기 기자

법인부동산

부동산시장의 세계적인 추세로인하여 평수를 국제 규격인㎡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토지 취급자유화) ※평을 ㎡로환산하려면 1평 = 3.3058㎡임.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통상가
대2380, 건1930, 대도로점면1250.72억, 프랜차이즈 대595,건850,면1100,대도로42억 010-2509-9996

관리지역 고품읍
2차선점, 6790㎡, 당33만 053)284-0076

거창명품사과
과수원 “금” 약3,200㎡, 건3억5천(기계값만 약1억) 농기계물량(물만가면물) 053)284-0188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카모텔 3억인수(용) 동구 대870㎡, 건18, 주책有 3, 파계사교환가 카모텔, 대구R19, 대1000㎡시설 매 출양호, 14억인수(용) 561-6561

관호텔, 23억인수, 대구신도시(용) 대1300㎡, 층50, 매출8천이상, 16억인수(용) 대711, 층36 임대수입 별도 053)561-6561

모텔 6억인수(용) 북구, 대320㎡, 건27, 리모델링1년, 매출양호 모텔, 13억인수(용) 달서구, 대690㎡, R33, 올리모델링053)561-6561

콘도 25억인수(용) 동해안최고위치, 연매출12억이상 임대수입, 대 카모텔 4억인수, 용별, 산속5년, 경주 대207㎡, 층24 053)561-6561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점, 건축가농, 1111㎡(336), 이억철천만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서구

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1-6003(2017-2016-00067)
(주)대동부동산(주)영천점 서구564-8200(가-13-2141)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더 깊어진 음색으로 돌아온 ‘피아노 듀오’

이진상&김태형 듀오 리사이틀

완벽 연주위한 노력과 ‘이진상’ 타고난 사운드 밸런스 ‘김태형’ ‘인사이트시리즈’ 마지막 무대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7일(금) 오후 7시 30분 마지막 인사이트 시리즈 ‘이진상&김태형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이날 출연자로는 ‘한국인 최초’라는 공통 수식어를 가진 이진상과 김태형이다. 국제 콩쿠르 우승 이력과 더불어 국내외 공연장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아티스트의 음악적 통찰력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올해의 대구콘서트하우스 ‘인사이트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한다.

김태형의 경우 타고난 사운드 밸런스와 논리정연한 해석으로 하마마스, 퉁티보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와 더불어 청중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하는 등 실내악 부문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 신화와 더불어 모든 특별상을 석권한 기록을 세웠음에도 피아노를 제대로 알고 연주하기 위해 피아노 테크니션인 슈테판 크누페에게 조율을 배웠으며 스타인웨이 피아노 공장을 방문해 실제 피아노 제작을 배우는 등 완벽한 연주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이날 선보일 곡은 그리그가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으로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곡은 하나의 피아노를 두 명에서 연주하는 포핸드 곡으로 김태형이 퍼스트 피아노를, 이진상이 세컨드 피아노를 맡았다.

연주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듀엣을 위한 총 6개의 소품으로 그 중 4개의 곡을 발췌해 연주한다. 2부 곡으로는 슈만의 초기 실내악 작품으로 작곡된 ‘안단테와 변주곡’이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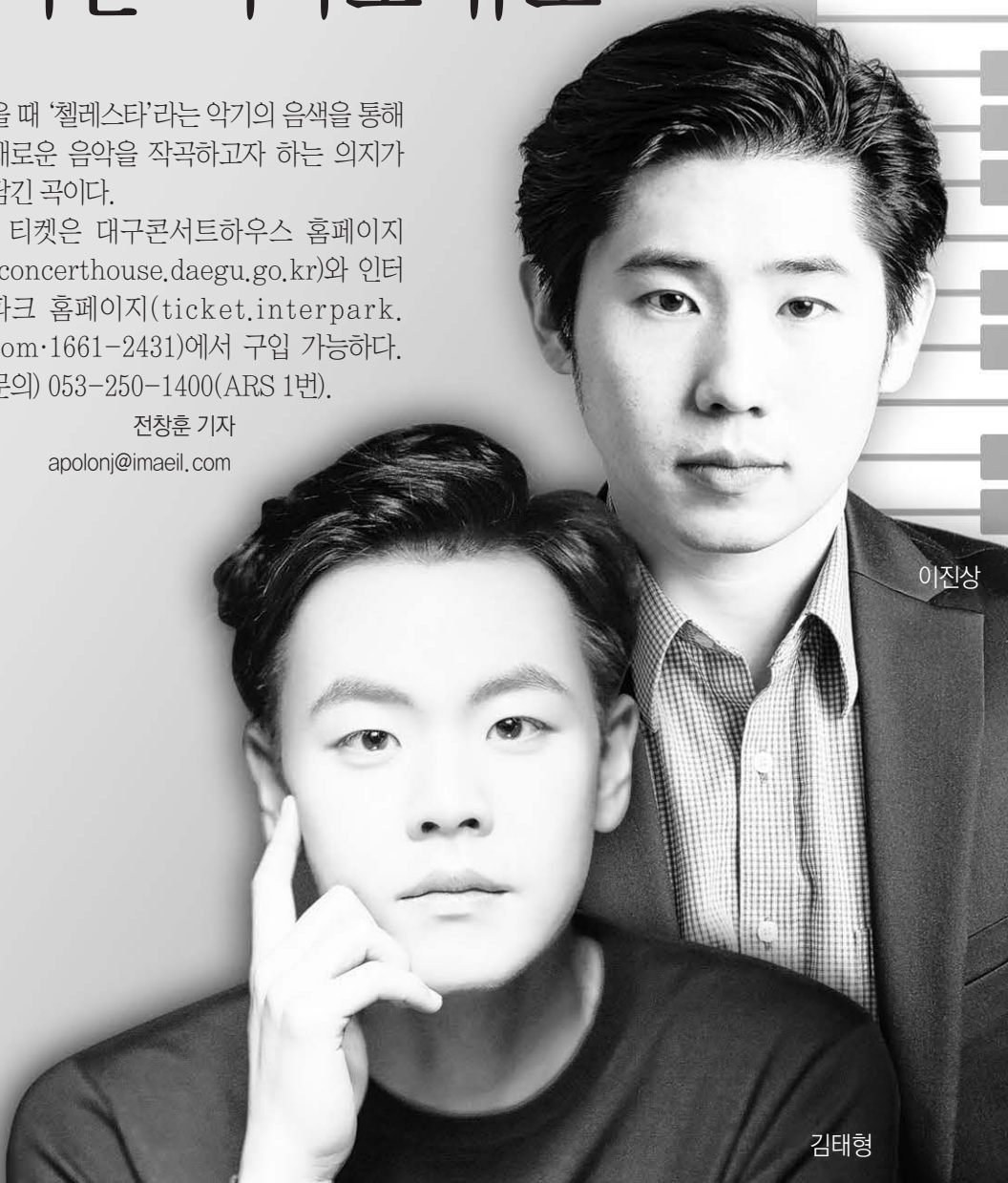
마지막 곡으로는 에코노무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선보인다. 발레음악으로 작곡된 ‘호두까기 인형’에서 8곡을 선곡해 모음곡 형태로 엮은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

을 때 ‘첼레스타’라는 악기의 음색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곡이다.

티켓은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concerthouse.daegu.go.kr)와 인터파크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1661-2431)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53-250-1400(ARS 1번).

전창훈 기자

apolonj@maeil.com



이진상

김태형

매일추추

열일곱의 나로 돌아간 시간

‘우리가 오늘 만난다면 얼마만이 지?’

메시지 창에 문자를 입력하며 친구에게 물었다. ‘백년만?? 다행히 오조오억만 년은 아니야.’ 마지막 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였는지 헤아려보았지만, 끊어진 필름처럼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간 연락은 뜸문 뜸문 주고받았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친구 집은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다.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정 집 앞에서 버스를 탔다. 한 때 매일 보았던 차창 밖 풍경인데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서로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이따금 만나 어제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였다. 그러다 결혼과 육아, 일에 치여,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가 돼버렸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데, 정거장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의 모습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100년만이라고 해도 알아 볼 친구의 모습이었다. “서울은 언제 온 거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는 괜찮은 식당을 찾기 위해 정처 없이 걸었지만, 그 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디에 가서 무얼 먹는지 보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더 소중한 거야.

우리는 아무 식당에 들어가 보이는 대로 음식을 주문하고, 쌓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부모님의 건강문제,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다행히 나는 친구보다 먼저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운 육아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보태줄 수 있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같은 시간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함께 교정을 걸었다. 나무가 길게 늘어선 곳을 지나, 연못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너 기억나? 우리 수학여행 마치고 서울 오자마자 노래방 갔던 거?”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우리는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더라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우리의 첫 일탈이었고,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이 친해졌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누구더라. 선경이, 은주, 미영이, 혜란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이름들인데 엮인 사탕처럼 줄줄이 떠올랐다. “개네들은 지금 뭐 하고 살까? 잘 살고 있겠지?”

아쉬운 시간을 접고, 나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는 늘 그랬듯, 내일도 만날 것처럼 애뜻한 포옹도 아쉬운 기색도 없이 헤어졌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주행 기차를 탔다. 밤급이 어졌는데, 친구를 만나기 전보다 더 많이 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제야 열차에 친구가 앉아 있는 상상을 했다. 떡볶이를 먹으며 일탈을 꿈꾸었던 그때처럼,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옷을 잠시 가방 속에 넣어두고, 오직 설렘만을 안고 떠나는 상상.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자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해를 넘기게 될 거라는 것을. 다행히 우리는 언제나 열일곱 살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우정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다.

그림책서점 ‘소소밀밀’ 대표



김지혜

위로와 힐링... 한해 마무리 ‘송년음악회’

대구시립합창단 내일 오후 7시 30분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서 기획연주

대구시립합창단은 16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기획연주 ‘송년음악회’를 연다.

1부에서는 국내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첫 번째 곡 ‘호수는 푸르고’ (작자 미상)는 안개 속에 안겨진 채 구름과 달 그림자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두 번째 곡 ‘노랑’ (이범준 곡)은 2015년에 발표한 무반주 아가펠라 곡이다. 세 번째 곡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조혜영 곡)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으로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네 번째곡 ‘첫눈 오는날 만나자’ (김준범 곡)는 동요스러운 멜로디로 어느 겨울날 첫 눈을 떠오르게 하는 가사로 추억을 되짚을 수 있는 곡으로 탐퍼커션 앙상블

이 함께 연주한다.

다섯 번째 곡 ‘눈 꽃송이’ (김기영 편곡)는 눈꽃송이, 봉숭아, 꼬부랑동네, 피리, 봄편지 등 동요를 메들리 형식을 엮은 곡으로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곡으로 객원출연 플루트 하지현, 첼로 오소영이 함께 연주한다.

2부의 첫 곡은 ‘Little man in a hurry’ (E. Whitacre)로 시작한다. 이 곡은 경쾌한 리듬으로 현대합창음악을 대표하는 곡 중의 하나이다. 이어 탐퍼커션 앙상블과 함께 하는 ‘The 12 days of Christmas’ (B. Chilcott)와 ‘Fantastic Christmas’ (조혜영 곡)가 따뜻한 연말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한다.

A석 1만6천원, B석 1만원.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과 대구콘서트하우스 콜센터(1661-2431),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53-250-1495. 전창훈 기자

피아니스트 최혜리 오늘 독주회 모차르트 12개 변주곡·슈만 소나타 연주

피아니스트 최혜리(사진)가 15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그녀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슈만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사단조’, 거쉰의 ‘3개의 프렐류드’ 등을 연주한다.

최혜리는 경북대를 수석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빈시립음악예술대학에서 피아노 석사와 오페라코치 석사 학위를 같이 취득했다. 현재 대구예술영재교육원, 경북예술고, 경북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전석 1만원(학생 5천원), 예매 티켓 링크. 문의) 010-5550-4277. 전창훈 기자



전창훈 기자



박지운 상임지휘자



오소영



하지현

대구시립합창단

법인부동산

일반부동산

달서구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부동산, 공장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급매성서업무시설용지

대830㎡, 당650만 010-9973-0097

★영천 공장매매★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대46671㎡, 건5401㎡, 평당가46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1400㎡, 건495㎡, 고4M, 당40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3000㎡, 건2214㎡, 고5M, 당45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6700㎡, 건5500㎡, 고9M, 크레인15대, 동력500kw, 당480만 010-9973-0097

★왜관 소재점매매, 대1029㎡

건305㎡, 대로변, 핫플레이스 추천/신강공인대건점, 스타벅스, 투썸베이커리, 스크린골프, 당600만 010-9973-0097

북구

■다들라치공인(김태형, 북구)가-15-2290 건물매매 580㎡, 최신8대, 매출4천이상, 인수9억, 오토운영, 순수익32% 010-7437-5535

■꽃메리공인(정영숙북구)2720-2018-0005 지천 ★싼경매공장★ 금호리 (물류+C인구) 대810, 건200, 대구경북 전지역경매공장상당 010-6727-7078

★천평공장분양★

대140, 건80, 대190, 건100, 평수다양, 즉시입주가능 010-6727-7078

★급매동명물류창고

대지1752㎡(530), 건1322㎡(400), 즉시 입주가능 010-6727-7078

남구

■천마부동산(조성진, 남구)11-2014-12 ★달구벌대로 땅★ 대904㎡, 당3900만, 급매 010-4000-1573

중구

■진성공인(최형웅, 중구)2710-2018-00033 (신축병원)매가400억, 역세권 대1,449㎡, 건16,084㎡, 지2상15, 각층1,100㎡, 주차150대, 보50억, 2억(부, 관별도), 매수당사자와 매수인 모신 신중한 중개사원 010-3521-1178

동구

■모두부동산(박민호, 동구)27140-2020-00130 신천동 병원부지 1,500㎡, 당1,900만, 대로접, 급매 053) 942-4080

수성구

■유명공인(박성현, 수성)2720-2016-00126 신축상가주택 8900만, 220억(대출80%가) 대1250㎡, 건9500㎡, 프랜차이즈 병원, 유명학원, 금융, 대기업, 대형커뮤니티, 대구최고상권, 유동인구최상, 용, 보안고

대형인도어 연매출15억/가거협(대출최대한도)대12925㎡/비거림최정, 고객만족 상권중고 위치아주좋은, 스크린, 상가모임 주차120대, ⑤⑥⑦월집 010-3701-0772

1400, 통상가, 47억, 대출80%, 수성구 대6600㎡, 유동인구최상, 대기업, 프랜차이즈, 인근주차충고, 지하철, 상권중고, 유동인구, 코너, 대단지 010-3701-0772

■리타스트(박민호, 수성)2720-2017-00196 8000㎡, 14억, 대273㎡, 건782㎡, 체인점, 피부부, 상점, 헤어, 사무실, ⑤⑥⑦대단지, 요지, 상업지역, 303㎡, 용15억, +보13억3천만, 급매 053)768-9000

1340㎡, 31억, 약국, 피부과, 이비인후과, 김밥, 휴대폰, 주간보호, 대696㎡, 건1289㎡, 수성구요지코너, 보3억9천, +26억1천만, 국비매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 수성)가-16-3703 매59억, 보7억8천, 용36억, 15억2천인수, 2, 3, 300만, 병원, 약국, 건물 010-3509-4725

범어롯데 61 R층, 22억, 1월임주 010-3509-4725

매110억, 보3.5억, 용60억, 46.5억, 인수, 3, 2, 200만,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봉림공인(이민호, 수성)2720-2017-00015 신축상가주택 1층, 2층, 성업중, E/V 주인집, 최고급 복층형, 3, 320만, 매8억5천만 053)761-2775

■버티공인(장미옥, 수성)2720-2021-00157 다부IC3분 계획관리 6,400㎡, 당90만, 교통요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완료 053)791-8887

수성구

동남부동산(최정호, 수성)가-17-1501

직원모집 37년전통 유튜브전문 직원 우대 모집합니다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 방문상담, 요양! 010-2714-1155

2층통상가 준신축, 160㎡, 개발호재, 매10억/3층 상가주택, 대로접, 개발호재, 250㎡, 당2천 ※식당임대, 최요지, 30㎡ 010-9219-0481

수성구달구벌대로 대1600, 역세권, 유명프랜차이즈, 공실률, 상업지역, 인수32억 010-6630-8648

월550 대로 코너상가, 대단지입구, 학원건물, 대75, 동명20, 5억, 역세권대로접, 유명체인점, 최고상권, 대100, 매24억

월550 역세권대로접, 유명체인점, 시세이하, 상업120, 매19억, 역세권대로접, 유명체인점, 최고상권, 대100, 매24억

수성구신축소형주택 수성롯데세권, 정남향, 주인세대, 방4, 매8억, 세용안고3억4천 053)762-6688

수성구신축상가주택 2000㎡, 만촌역세권, 소액투자전용, 매10억, 자부담2억2천인수 053)762-6688

범어동신축상가주택 4000㎡, 수성구청 역세권, 경신고입구, 매19억, 자부담 8억인수 053)762-6688

대구 동남공인(정희수, 수성)2720-2018-00131 남구 역세권 통상가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급상권 최고상가 월1,650, 대로코너, 대1,400㎡, 병통임, 정, 상업지, 32억인수 053) 751-4343

범어동빌딩 월4,500 대800㎡, 2호선점 ※150억 053) 214-8816

월2500최요지상가 상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가26억 053) 742-8383

현대공인(정희수)2720-2018-00066

서부정류장역세권 상가 상업지역, 대118, 연450, 매52억(병통임, 개인, 용도건물사용허사) 054) 956-9082

월2500, 대250, 대1100, 건240, 보6천, 월600(H4대, 고13) 010-2878-8945

시내 중심상가

신축가능 상가부지, 대150, 대출35억, 매60억 054) 956-9082

남구 역세권 통상가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급상권 최고상가 월1,650, 대로코너, 대1,400㎡, 병통임, 정, 상업지, 32억인수 053) 751-4343

범어동빌딩 월4,500 대800㎡, 2호선점 ※150억 053) 214-8816

월2500최요지상가 상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가26억 053) 742-8383

현대공인(정희수)2720-2018-00066

서부정류장역세권 상가 상업지역, 대118, 연450, 매52억(병통임, 개인, 용도건물사용허사) 054) 956-9082

월2500, 대250, 대1100, 건240, 보6천, 월600(H4대, 고13) 010-2878-8945

시내 중심상가

신축가능 상가부지, 대150, 대출35억, 매60억 054) 956-9082

남구 역세권 통상가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수성구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깨끗, E/V, 월870만, 당35억 010-8030-7069

성주군

대경부동산(이민호, 성주)4780-2017-00008

성주 1차 일반산단 지원부지 매매 대228, 당260만, 원룸, 식당, 다용도, 전면25m, 인도10m, 접한 남향, 분할매매, 대출3억 054)933-9944

벽진 북항리(선학동) 1670, 당18만 (3억) 청정지역, 분할 후 전원, 주택지가능, 귀촌자 환영, 도로보다 지대 높고 주위 전원주택 많음 054)933-9944

벽진면 소재지내 (수천리) 491, 당25, 계획관리, 면소재지인근, 지대높고 전망호, 동네입구, 땅, 전원주택 지를분 054)933-9944

벽진 (매곡리) 측사, 계획관리, 3,282, 당675, 건136, 80M, 당98만, 주책지, 길넓고, 계획관리 408, 당48만, 정남향 054)955-4949

고령군 덕곡면 (계회관리) 4540, 당17만, 가야산, 들어가는 입구, 오토캠핑장가능, 투자, 다용도, 시세보다 저렴 054)933-9944

성주읍 (학산리)계회관리, 입야, 전, 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하실분, 팔갈은입야, 현재조성숙식재, 투자환영 933-9944

성주읍 2억2천만, 의성군,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월90만, 1칸, 골길 010-4507-7849

성주읍 2억2천만, 의성군,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월90만, 1칸, 골길 010-4507-7849

성주읍 2억2천만, 의성군,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월90만, 1칸, 골길 010-4507-7849

성주읍 2억2천만, 의성군,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월90만, 1칸, 골길 010-4507-7849

새로운 국면 맞은 사자군단 FA 시장

“백정현을 잡아라”



박해민은 떠났다...

삼성에 남은 집토끼 사수 작전

일부 팬들 사이 목소리 커져
외부 영입 선 굵고 내부 단속
강민호는 김태균 영입 후폭풍

삼성라이온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은 내부 FA 3인방(외야수 박해민, 좌완 백정현, 포수 강민호) 잔류를 최우선 순위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박해민이 4년 60억원에 LG로 떠났고, NC와 2대1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김태균을 영입하면서 강민호와의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3인방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간 상황. 잔류를 기대했던 박해민이 떠나면서 백정현, 강민호와 협상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상원고 출신의 프랜차이즈 선수인 백정현만이라도 확실히 붙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정현은 올 시즌 27경기 선발로 나서 157.2이닝을 소화, 14승 5패 평균자책점 2.63을 기록했다. 특히 평균자



삼성라이온즈 백정현.

책점은 토종 투수 중 1위인 데타 팀 내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이 5.28로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선수 스스로 삼성에 남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박해민의 이적이 선례가 된 만큼 계약서에 확실히 사인할 때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백정현은 현재 에이전트에 협상을 일임한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백정현 측과 몇 차

레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구단 안팎에서는 박해민을 놓친 삼성이 백정현에게 좀 더 공을 들일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민호와의 협상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 투수 심창민과 포수 김응민을 NC에 내주고 포수 김태균을 받는 2대1 트레이드를 진행, 주전급 백업 포수를 확보하면서 강민호와의 FA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강민호는 올 시즌 123경기에 나와 타율 0.291 18홈런 67타점을 기록, 골든글러브까지 들어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외부 FA 영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남은 내부 FA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 관계자는 “외부 FA 영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남은 내부 FA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우정 기자 kwj@maeil.com

LG로 집 나간 토끼 공백 메우기

4년 총액 60억원에 이적 계약
“새로운 도전, 친정팀에 감사”
삼성 보상선수 지명 가능성

빠른 발과 넓은 수비범위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삼성라이온즈 ‘캡틴’ 박해민이 LG트윈스로 옮긴다.

LG는 14일 박해민과 계약기간 4년 총액 60억원(계약금 32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한화이글스 주전 포수 최재훈이 5년 최대 54억원에 잔류 계약을 맺은 이후 두 번째 FA 계약.

삼성으로선 아쉽지만 대졸 육성 선수 출신의 박해민 개인으로 FA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박해민과 자주 비교된 두산베어스 외야수 정수빈이 지난해 FA에서 6년 총액 56억원에 계약한 규모보다 더 크다.

신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2012년 육성 선수로 삼성에 입단, 2014년부터 1군 주축 선수로 경기를 뒀던 박해민은 국가대표 중견수이자 KBO리그 리드오프의 대명사로 불린다.



LG트윈스로 이적한 박해민.

1군 통산 1천9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6(3천994타수 1천144안타) 42홈런 414타점 706득점 318도루를 기록 중이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도루 1위에 오른 등 빠른 발과 ‘박해민이 못 잡은 공은 그 누구도 잡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박해민은 국가대표 중견수이자 KBO리그 리드오프의 대명사로 불린다.

차명서 LG 단장은 “박해민은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리그 최고 수비력과 함께 공수주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해민은 “삼성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선택하게 됐다.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 준 삼성과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 LG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삼성은 박해민의 공백을 메울 준비에 돌입한다.

박해민은 FA 등급 ‘A’로 삼성은 LG로부터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 보상 혹은 20인 외 보상선수+연봉 2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수층이 두터운 LG인 만큼 삼성은 보상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LG가 지켜야 할 20인 명단을 살펴보고 차분히 선택할 예정이다.

외부 FA 영입에 선을 그은 삼성은 내부 육성 방침도 내세웠다. 김현곤, 박승규 등이 박해민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의 차기 주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박해민 이전 주장을 맡았던 김상수와 올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들어 올린 구자욱을 비롯해 김현곤 등이 주장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고교야구 최고의 포수·홈런타자는 누구?

21일 KBO서 이만수상 시상식
역대 수상자 프로무대서 대활약

올해 최고의 고교 포수와 홈런타자를 선정하는 제5회 이만수 포수상 및 홈런상 시상식이 오는 21일 KBO에서 개최된다.

이만수 포수상 및 홈런상은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포수 이만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제정됐다.

역대 수상자들은 모두 현재 KBO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다.

김형준-한동희(2017년), 김도환-변우혁(2018년), 강현우-안인산(2019년), 손성빈-박찬혁(2020년)까지 고교야구를 거쳐 프로 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이만수 포수상 수상자인 손성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만수 헬크 파운데이션 이사장. 헬크파운데이션 제공

빈은 장안고 3학년 때 12경기 타율 0.359(39타수 14안타) 1홈런 10타점을 기록한 뒤 롯데자이언츠의 1차 지명

을 받았다. 이만수 홈런상 수상자 박찬혁은 천안북일고 2학년 시절 15경기에서 타율 0.365(52타수 19안타) 6홈런 17타점 맹타를 휘두른 뒤 키움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이만수는 1997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1천449경기에서 타율 0.296 252홈런 860타점 624득점을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포수로 활약했다.

현역 유니폼을 벗은 뒤 코치와 감독 등을 거친 이만수는 헬크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후학 양성에 힘 쏟고 있다. 2017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포수상과 홈런상을 제정해 고교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유동주 세계역도선수권 89kg 우승 ‘번쩍’

인상과 용상 모두 3위였지만
합계서 1위 차지 챔피언 등극

유동주(28·사진·진안군청)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1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89kg급 챔피언에 올랐다.

유동주는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9kg급 A그룹 경기에서 인상 167kg, 용상 204kg, 합계 371kg을 들었다.

인상과 용상 모두 3위였지만,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유동주는 인상 1~3차 시기에서 160kg, 165kg, 167kg을 차례대로 성공했다.

인상 1위는 175kg을 든 안드라니 카라페트얀(아르메니아)이 차지했다. 그러나 카라페트얀은 용상에서 1~3차 시기를 모두 실패해 실격했다.

레바스 다비타제(조지아)는 171kg을



유동주(28·진안군청)가 202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9kg급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들어 인상 2위에 올랐다.

용상에서 유동주는 1차 200kg, 2차 204kg에 성공했다. 208kg을 신청한 3차 시기에서는 바벨을 놓쳤다.

205kg을 든 아르툰 오콜로프(러시아)

역도연맹·러시아 도핑 제제로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와 사르바베크 자파르조노프(우즈베키스탄)가 용상 1, 2위에 올랐고 유동주는 이 부문 3위를 했다.

그러나 경기 뒤 가장 크게 환호한 선수는 유동주였다.

자파르조노프도 유동주와 같은 합계 371kg(인상 166kg·용상 205kg)을 들었지만 ‘먼저 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우선 순위를 준다’는 규정에 따라 유동주가 합계 우승을 차지했다.

유동주는 용상 2차 시기에서 합계 371kg을 완성했고, 자파르조노프는 용상 3차 시기에서 합계 371kg을 채웠다.

인상, 용상 순으로 진행되는 역도에서 유동주는 총 5번째 시기에서 합계 371kg을 들었고, 자파르조노프는 6번째 시기에서 최종 기록을 만들었다.

다비타제는 합계 370kg(인상 171kg·용상 199kg)으로 3위에 올랐다.

유동주는 개인 4번째로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침내 시상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LA클리퍼스 vs 피닉스

피닉스 선즈 가드 크리스 폴(3)이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LA 클리퍼스 센터 이비카 주백(40)을 상대로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

읍면동	아파트명	층가 구수	m ² (전용면적)	매매하한 (전용면적)	매매상한 (단위: 만원)	전세하한 (단위: 만원)	전세상한 (단위: 만원)	연락처
◇ 달 성 군 ◇								
가창면	가창중석타운	360	59.98 84.98	18500 24500	20500 28000	13500 17500	15000 20000	구구공인 053-765-0909
논공읍	논공청구타운	511	59.91 84.81	6600 12500	7500 14500	4700 8100	5300 9000	헤인공인 053-616-5531
	달성성원	1364	52.08 59.34	4900 5700	5600 6500	3500 4300	4100 5000	논공공인 053-616-4980
가창면	강창대성그린시티	932	59.88 84.79	15000 23000	17000 26500	11500 15400	13000 17400	현대공인 053-585-1771
	강창하이츠	998	29.64 59.94	7000 14000	8000 16000	5300 10000	6300 11900	
가창면	건영캐스빌	415	59.66 84.99	18000 21500	20500 24500	13000 17500	16000 21000	동화예곡공인 053-582-4488
	다사e편한세상	785	84.97 126.61	35000 46000	39000 50000	29000 35500	32000 39500	유엔아이공인 053-588-4489
다사읍	대실역이편한세상	698	84.78 117.54	40000 52000	45000 58500	26000 32000	28500 36000	현대공인 053-585-1771
	대실역청야람2단지	1316	59.97 84.93	30000 39800	32700 43600	21000 25500	24000 29000	정원부동산 053-593-7688
다사읍	서재보성2	634	59.98 84.95	13500 18500	15000 21000	10000 12500	11000 14000	명성공인 053-585-8884
	서재화진금봉타운	810	59.96 84.85	13300 17500	15500 20000	9800 12500	11500 14500	
다사읍	죽곡푸르지오2단지	544	84.61 118.46	48500 67000	54000 74000	36500 48000	40000 53000	정안공인 053-581-0061
	죽곡하우젠트아너스빌	605	85.00 112.62	39500 49000	44000 54000	27000 32500	30000 36000	정원부동산 053-593-7688
옥포읍	옥포제림뉴타운	479	59.84 84.87	9500 15000	11000 17000	6500 8000	7000 9000	삼성공인 053-617-4989
	반도유보라	845	70.09 84.96	23000 29000	26000 32500	18500 23000	20500 26000	풍경채앤드 053-615-4994
유기읍	우미린 디포레스트	827	75.58 84.92	28500 35000	31500 38500	20600 24500	22500 27000	테크노관공인 053-614-4900
	대구테크노폴리스 서한아다음	637	66.85 77.19	21500 25000	24500 28000	17000 20000	19000 21500	서한평공인 053-616-9494
현풍읍	대곡역래미안	1451	84.29 100.00	37000 41700	42000 48300	28000 30300	32000 34200	래미안경동부동산 053-639-0303
	명곡미래빌1	976	84.34 84.98	26000 35000	29500 39000	21000 27500	23000 30000	대원공인 053-639-0303
화원읍	신동아파밀리에	425	115.65 79.46	45100 29000	50000 32500	34000 21000	38000 23000	래미안경동부동산 053-639-0303
	태왕리더스	321	84.95 59.87	33000 13000	37000 15000	24000 9000	27000 10000	대원공인 053-644-0999
화원읍	화원삼주타운	435	75.50 59.97	16500 15000	18500 17500	10500 11700	12500 13200	053-631-0008 신용공인
	화원태왕타운	741	84.84 84.84	21500 21500	24500 24500	15500 15500	17500 17500	053-636-1800

◇ 동 구 ◇								
각산동	각산푸르지오2단지	596	84.93 103.27	29000 33500	32000 38500	23000 26500	26000 30000	푸르지오공인 053-962-6682
	대구혁신도시 서한아다음	479	73.70 84.46	33000 41000	37000 47000	26500 33500	30000 38000	서한명가공인 053-962-0900
대림동	대구혁신도시 서한아다음3차	380	74.67 78.85	28000 31500	31500 36000	25000 26500	29000 30000	착한공인 053-944-2882
	강변1	477	65.55 84.96	21000 29000	24000 33000	10500 16000	12000 18000	방촌공인 053-983-2111
방촌동	보성강남타운	330	59.99 84.95	21000 29500	24000 34000	16000 18000	18000 20500	새우성공인 053-984-7800
	영남네오빌	930	59.77 84.99	23500 32000	27000 36500	16000 22500	18000 25000	네오부동산 053-989-6945
봉우동	우방강간마을1	1504	59.88 84.98	20000 27500	23000 31000	16000 21000	18000 24000	새우성공인 053-984-7800
	대구이시아폴리스 더샵1차	652	84.94 122.74	40000 51000	46000 58000	31000 38000	34000 44000	더샵공인 053-986-5588
봉우동	대구이시아폴리스 더샵2차	750	84.70 96.51	41500 51000	48000 58000	30000 35000	34000 40000	더샵공인 053-986-5588
	대구이시아폴리스 더샵3차	1686	84.85 96.86	45000 52500	51000 58000	35000 36500	38000 42000	
불로동	불로강변타운	114	59.76 76.55	12500 13500	14500 15500	7000 8000	8000 10000	에덴부동산 053-983-1717
	에덴광항1	250	39.42 49.95	8700 11500	10500 13500	6000 8700	7000 10000	전원공인 053-982-8400
불로동	제림빌리지	160	49.47 59.78	10500 14000	12000 16500	6500 8500	8000 10000	에덴부동산 053-983-1717
신기동	신기모란3차	640	49.98 59.46	20000 21500	22000 24500	11000 13000	12500 15000	잠미공인 053-965-5238
	화성	440	47.17 59.77	18500 21500	21000 24500	10500 12500	12000 14000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934	84.87 84.92	31500 31500	37000 37000	25000 25000	29000 29000	골드공인 053-963-8100
	아름다운나날1	782	58.64 84.67	21000 26000	24000 29500	17000 21500	19500 24500	아름다운공인 053-963-6886
신암동	보성1차	545	50.85 81.20	24000 34500	27000 38500	8000 13500	10000 15000	신암뉴타운공인 053-954-2300
	신암건영캐스빌	748	58.61 83.72	26500 31000	30000 35500	18500 24500	21000 28000	
신암동	신암뜨란채	828	59.44 84.35	28000 36000	32000 41000	20000 27000	23000 31000	뜨란채부동산 053-953-6868
	두산위브	294	84.11 124.32	46000 61000	53000 70000	35000 45000	40000 51000	신천두산공인 053-743-8990
신천동	신천가람타운	1376	52.02 59.91	19500 21000	22000 24000	14000 16500	16000 19000	하나공인 053-951-8589
	신천역센트럴리버파크	785	75.83 84.87	39000 44000	44000 50000	31500 35000	36000 40000	신천센트럴공인 053-953-7788
신천동	신천자이	854	76.51 84.87	46000 50000	53000 58000	35000 37000	40000 43000	하나공인 053-951-8589
	신천주공2	609	49.84 84.91	19500 29500	22000 34000	16000 21000	18500 24000	뉴대원공인 053-422-6969
신천동	신천청아람	490	59.51 84.88	35000 42000	40000 48000	27000 34000	31000 39000	뉴월드부동산 053-744-6500
	우방푸른타운	607	58.83 58.04	19500 26000	22000 29500	14500 20500	16500 23000	송이공인 053-431-8800
용계동	강변동서마을	647	76.27 84.98	24000 28500	27500 32500	16000 21500	18500 21500	동서공인 053-963-2250
	대구율하2 세계육상선수촌1단지	528	101.75 131.23	45500 60000	53000 70000	35000 47000	40000 53000	
율하동	대구율하2 세계육상선수촌2단지	652	74.80 84.61	37500 45000	42000 52000	28500 38500	32000 44000	신우공인 053-961-9377
	율하휴먼시아 12단지	442	101.85 150.19	45000 63000	52500 72000	35000 43000	41000 50000	
입석동	동촌화성타운	184	59.92 84.94	18000 24000	20000 27500	12000 15500	13500 17500	한성공인 053-983-8945
	왕산우방타운	215	59.98 84.93	14500 19500	16500 22000	10000 15000	12000 17000	다상신세계공인 053-982-7600
지묘동	팔공보성1차	727	59.85 84.99	13500 20500	15000 23500	11500 15000	13000 17000	우리공인 053-984-5700
	팔공보성타운2	748	47.03 84.99	10000 15100	11500 25000	8000 16000	9000 18000	
지묘동	팔공보성타운3	650	59.99 85.00	18000 23000	19500 26000	12500 15000	14500 17500	다상신세계공인 053-982-7600
	진로이스트타운	897	59.79 84.90	25500 31000	29000 35500	17500 21000	20000 24000	21세기공인 053-942-8123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1859	59.85 84.92	20500 29000	23500 33000	17000 25000	19000 28000	태왕공인 053-956-6000

◇ 수 성 구 ◇								
노변동	노변대백	432	59.97 84.95	21500 32500	25000 37000	16000 23500	18000 25500	공인이중 053-795-7005
	수성SK리더스뷰	788	110.61 154.32	122000 158000	140000 188000	73000 100000	83000 118000	SK해바라기부동산 053-762-0049
두산동	만촌보성타운	661	59.87 84.98	28500 33500	32500 38500	18000 24000	21000 28000	헤원공인 053-743-8545
	만촌우방타운1단지	1224	59.73 84.92	55000 94000	63000 103000	25000 40500	28000 44500	파크공인 053-753-1230
만촌동	만촌태왕리더스	433	59.69 84.96	39000 55000	44500 63000	27000 39000	30000 44000	뉴솔로몬공인 053-753-9288
	메트로팔레스3	878	84.93 134.98	60500 75000	68500 87000	42000 51000	48000 58000	허만학공인 053-759-8949
수성동	수성2차e-편한세상	447	84.66 121.06	92000 112000	107000 130000	50000 58000	57000 66000	LBA한영공인 053-746-4959
	수성아크로타워	224	127.53 138.52	132000 140000	152000 160000	75000 80000	85000 90000	
매호동	매호동서타운	687	59.90 84.98	24500 35500	28000 40000	19000 25500	21000 28000	부동산가이드 053-794-4400

계재순서

▶대구 달성군·동·수성·중구, 경북 경산·경주시

▶대구 남·달서·북·서구, 경북 구미·김천시·울진군

▶대구 달성군·동·수성·중구, 경북 포항시

▶대구 남·달서·북·서구, 경북 문경·상주·안동·영주·영천시·칠곡군

매호동	매호효성백년가역	419	84.97 117.57	37000 46000	42500 53000	30000 37000	34000 41000	대정공인 053-792-1003
	한일유엔아이	490	84.99 119.16	40500 58000	47000 65500	31000 39000	34000 42000	금비공인 053-791-0884
	범물영남	442	84.39 133.88	42500 56000	47000 61000	27500 37000	30000 40000	e남경공인 053-782-1900
범물동	서한화성타운	612	84.58 133.92	38000 47000	42000 53000	26000 33500	29500 37000	킴부동산 053-783-0010
	청구타운	594	59.91 134.49	27000 49000	29500 55500	18000 34500	20000 37500	e남경공인 053-782-1900
	가든하이츠3	282	84.98 116.68	82000 97000	93000 110000	40000 49000	45000 56000	최선부동산(주) 053-741-0070
범어동	경남타운	312	84.55 115.64	117000 142000	135000 165000	29000 40000	33000 47000	
	궁전맨션	538	84.96 131.16	108500 144000	120500 162000	31000 43000	36000 48000	LBA대경공인 053-744-5600
	래미안수성	467	126.09 134.57	106000 108000	123000 125000	59000 62000	68000 70000	연세공인 053-752-3337
범어동	범어삼성세르빌	213	84.94 118.52	108500 130000	125000 150000	54000 60000	62000 72000	창성공인사 053-741-5444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404	84.83 92.95	93000 105000	108000 120000	46000 53000	52000 61000	대원공인 053-754-4001
	범어청구푸른마을	378	84.96 134.45	75000 89000	85000 100000	40000 47000	46000 53000	부동산하우스공인 053-744-8114
범어동	범어화성파크드림	179	84.97 126.33	62000 76000	71000 87000	39000 51000	43500 58000	바상준공인 053-751-5990
	청구성조타운	445	59.46 84.90	43000 56000	49000 63000	27000 31000	31000 36000	연세공인 053-752-3337
	화산샬레	169	74.70 84.97	80000 102000	90000 117000	44000 55000	50000 63000	창성공인사 053-741-5444
사월동	사월보성	1498	59.97 84.99	17000 31500	19500 36000	13500 24500	16000 27500	시지소원공인 053-794-2828
	시지대성유니트	413	97.19 123.45	35000 41500	39000 46000	25500 29000	29500 33000	뉴동원공인 053-792-8500
	시지동화 아이위시	352	71.60 84.89	31000 38500	35500 43500	24000 30000	26000 34000	
상동	수성동일하이힐 레이디스타	1411	118.91 134.91	85000 103000	98000 123000	60000 65000	68000 75000	동일OK공인 053-768-2244
	정화오파랑레스	488	84.98 134.95	53000 71000	60000 81500	31000 44000	35000 50000	정방부동산 053-765-4545
	청구타운	150	59.99 85.00	26500 35500	30500 40500	15000 23000	18500 26000	궁전공인 053-761-8003
수성동1가	삼우수성타운	292	59.97 84.90	31000 40500	35000 47000	22000 30000	25000 33000	사람과마을 053-751-5474
	수성대백인터빌	235	74.11 84.65	45500 61000	52000 100500	37500 49000	42000 56000	
	수성롯데캐슬TheFirst	979	84.65 99.91	91000 104000	105000 117000	49000 60000	56000 68000	롯데대강공인 053-759-4334
수성동2가	신세계타운	930	116.91 134.79	73000 78000	85000 91000	37000 41000	43000 48000	
	우방한가람타운	272	59.93 84.99	29000 37000	33500 43500	20000 27000	23500 31000	왕건부동산해브 053-766-6333
	롤바드	108	97.94 141.88	93000 97000	108000 115000	57000 64000	65000 72000	미소공인 053-744-4334
수성동3가	수성3가롯데캐슬	802	136.22 166.98	123000 138000	143000 160000	72500 78000	83000 89000	
	수성코오롱하늘채	439	126.33 149.81	133000 147000	156000 168000	82000 85000	93000 98000	롯데대강 053-795-0005
	대림이편한세상	664	84.93 152.02	60000 86000	69000 100000	39000 53000	44000 60000	
수성동4가	수성보성	1032	49.21 84.48	32000 59000	36500 70000	22500 35000	25000 40000	유니드공인 053-755-9966
	수성대영대시앙	718	84.48 114.27	77000 87000	89000 100000	49000 55000	55000 62000	한성공인 053-742-0088
	쌍용화성	677	60.00 84.90	36500 52000	42000 60000	24000 31000	27500 35000	유니드공인 053-755-9966
시지동	노변청구	465	59.99 84.86	32000 47500	37000 52000	20500 27000	23000 30000	금탑공인 053-792-8008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698	59.94 84.91	69000 84000	78000 97000	39000 47000	43000 55000	알파시티대륙공인 053-791-5589
	시지월드메르디앙	603	85.00 116.38	60500 73000	68000 82500	42000 46000	46000 50500	고려부동산 053-793-9700
시지동	시지태왕야너스	407	84.88 110.83	55000 66500	63500 75500	41000 48500	45000 52000	
	청구전원타운	678	60.08 84.98	36000 51000	40000 57000	16500 25500	18500 28000	금탑공인 053-792-8008
	시지대백선화 창신아파트	870	59.75 84.88	23000 35500	26000 39500	17000 25500	19500 28500	
신매동	시지보성서한아파트	664	84.99 116.65	39000 49000	43000 53500	28000 33000	30000 37000	옥수공인 053-793-3500
	시지청솔타운	750	57.39 84.91	19200 19500	21700 22500	15500 16000	17500 18500	청솔공인 053-794-8545
	시지효성백년가역 1단지	299	59.93 129.57	68500 87000	78500 98000	45500 56000	50000 61500	세원부동산 053-793-2800
신매동	신매아이프라이م	309	84.91 111.84	48000 57000	57500 64500	34000 41000	38500 44000	대명공인 053-793-9500
	천마타운	1095	84.99 121.04	43000 55000	48500 61000	28000 35000	31000 39000	
	태왕하이츠1	343	59.98 84.98	24500 35000	28000 40000	21000 27500	23500 30500	황소공인 053-794-4433
옥수동	시지5태왕하이츠	416	80.85 84.71	35800 43000	39000 47500	27000 29500	30500 34500	가경공인 053-792-5445
	태왕4하이츠	402	79.85 84.71	36000 43000	41500 49500	29000 31000	32000 34000	
	중동	광명프레지던트	233	74.09 84.06	34500 34500	40000 40000	18000 18000	21000 21000
지산동	녹원맨션	542	84.96 108.72	63000 73500	59500 72000	26000 30000	29000 33000	우진공인 053-782-1199
	보성맨션	526	84.99 113.09	43000 44000	48500 49500	27000 31000	30000 34500	사계절공인 053-783-9119
	청구타운	455	84.90 116.98	41000 50500	44500 52000	26000 32000	29000 35500	우진공인 053-782-1199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832	84.95 84.84	50500 50500	58000 58000	37000 37000	42000 42000	화인공인 053-767-8979
	청구하이츠	176	59.99 84.95	18500 26000	20500 29000	12500 15500	14000 18000	
	화성파크뷰	228	84.98 109.83	36000 40000	41000 46000	24000 28000	27000 32000	한울공인 053-761-9889
황금동	신천지타운	425	85.00 134.79	62500 78000	72000 90000	27000 44000	32000 50000	한진공인 053-762-7441
	태왕야너스	480	98.60 123.01	117000 156700	130000 176800	65000 76800	75000 94000	e우방공인 053-765-1001

“영화 속 오페라, 숨은 의미 알면 더 재미있어요”

매일 탐 리더스 아카데미 지상 강연

성악가 테너 최덕술 씨

오페라 장면·삽입곡 의도 갖고 있어
‘귀여운 여인’서 ‘라 트라비아타’ 관람
‘정도를 벗어난 여인’ 뜻해 직접 암시
투란도트 ‘네순 도르마’ 등 5곡 열창



성악가 테너 최덕술 씨와 소프라노 이윤경 씨가 13일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참가 회원들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오페라,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들이 영화 속에 오페라의 한 장면이나 아리아를 삽입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이 곡을 넣었을까, 이 장면을 찍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더 커집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 테너 최덕술 씨가 13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영화 속 오페라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최 씨는 ▷귀여운 여인 ▷007 퀸텀 오브 솔러스 ▷쇼생크 탈출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파리베리 등 다섯 영화에 나온 오페라 장면과 오페라에서 나온 클래식 삽입곡을 소개하며,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나

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관람 장면에서 주목했다. 최 씨는 “줄리아 로버츠가 맡은 ‘비비안’은 몸을 파는 여성인데, 두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극장에서 관람하는 작품이 바로 라 트라비아타”라며 “제목의 뜻이 뭐냐면, ‘정도를 벗어난 여인’이다. 비비안의 직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페라를 본 적도 없고 클래식 음악도 모른다’던 비비안이 작품이 끝날 때쯤에는 눈물을 흘린다. 감성적으로 순수한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직관으로 봐도 감동받을 수 있는 게 오페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007 퀸텀 오브 솔러스’에서 긴장감 넘치는 오페라 극장 장면에서 푸치니의 ‘토스카’를 소개한 최 씨는 다음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영화”라며 ‘쇼생크 탈출’의 유명한 장면을 소개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은행가 출신 주인공 앤디가 소장의 탈세를 도와

신뢰를 얻은 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Che soave zeffiretto)를 교도소 전체에 트는 장면이다.

최 씨는 “이 음악은 백작부인과 시녀 수잔나가 백작을 속이려는 가짜 편지를 쓰며 부르는 노래”라며 “이것이 결국 불법 이중장부를 만들어줘 돈을 빼돌리게 한 뒤 탈옥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간 주인공 앤디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고 했다.

네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에 나온 오페라 ‘투란도트’의 명곡 ‘네순 도르마’. 최 씨는 “오케스트라가 순식간에 고음을 내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여기서 ‘악보’를 보여준다. 그때 쓸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세 가수 ‘카스트라토’를 주제로 한 영화 ‘파리베리’를 소개한 그는 동행한 소프라노 이윤경 씨와 함께 영화에 나온 투란도트의 ‘네순 도르마’를 비롯해 5곡을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 회원들 앞에서 직접 공연해 감동을 안겼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클래식을 연주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12월의 밤 매일탐리더스 회원들에게 감동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인사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군위군·대구가톨릭대 상호 교류 업무협약

경북 군위군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3일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공무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인적 네트워크 및 시설 인프라 공동 이용, 산·학 협력 장학금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설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대구시설공단(이사장 최길영)은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지역사회 회원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대한적십자사 및 지역 자원봉사단과 함께 10일 남구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대표자 회의

경북대병원은 9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병원장 주관으로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원외 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산업, 경북도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 전달

유통취약농가·사회복지시설 지원
2019년 5억 기부 동반 성장 앞장

경상북도는 14일 도청에서 화성산업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산업이 출연한 기금은 협력재단의 승인을 거쳐 지역 유통취약농가,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화성산업은 울릉도 일주도로 개설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조성, 아파트 브랜드인 화성파크드림으



이종원(가운데) 화성산업 대표이사가 14일 경북도청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전달하며 이철우원장 두 번째 경북도지사서 기금전환을 하고 있다.

로 잘 알려진 지역 대표 건설회사이다.

또한 201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30억원, 2019년과 올해 농어업발전에 각 5

억원을 포함해 최근 40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민과의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화성산업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업무와 휴양을 연계한 기업 연계 농촌힐링워크에도 참여, 지난 11월 경주 옥산마을과 직원연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농촌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 경감과 상생 협력을 위해 기업들의 출자로 마련돼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이종원 대표이사는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화성산업이 경북도와 협력재단을 통해 화성산업의 사회봉사정신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화성산업의 연이은 기부가 농어업·농어촌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지역 동반성장 이념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영재 기자 pyc@maeil.com



유니코정밀화학 이웃돕기 포항시에 연탄 1만5천장

(주)유니코정밀화학(대표 송방차량)은 13일 한파에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포항시에 연탄 1만5천장(1천2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대기자원봉사센터에 1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지사장 김진호·오른쪽)는 13일 대구 방역 현장 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연욱)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우갑배 우신전력 대표, 아너소사이어티 대구 193호

우갑배 우신전력(주) 대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대구 193호 회원이 됐다. 지난 1일 회담 2022 나눔캠페인 시작 이후 첫 가입 소식이다.

우갑배 대표는 “오랜 기간 나눔을 실천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수록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웠다”며 “아너소사

이어티 가입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대구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우 대표는 평소에도 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부터 매월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왔고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에도 기부를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원 이상 또는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기부를 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2천7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대구에는 총 193명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배주현 기자 pearzoo@maeil.com



우갑배 우신전력 대표가 ‘아너소사이어티’의 대구 193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가톨릭 공직자 모임 ‘암브로시오회’ 10주년 기념미사

천주교대구대교구 가톨릭 공직자 모임인 암브로시오회(지도신부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회장 백건기 칠곡군수)는 13일 꾸르실료교육관 성전에서 10주년 기념미사를 가졌다. 암브로시오 모임은 2011년 암브로시오 성인 축일인 12월 7일 대구 지역 공직자들이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해 주교님의 승인에 의해 출범했다.

이날 기념미사에는 류성걸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백건기 칠곡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최영조 경산시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암브로시오회는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금, 장학금을 전달하며 암브로시오 성인의 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날 10주년 기념미사는 지도신부 말씀, 회장 인사 말씀, 그리고 회원들의 모임 소회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도



신부인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브로시오회 회원은 30명이다.

이동원 기자

와룡식품, 경산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와룡식품(대표 김경도)은 최근 경산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의성 성광교회, 저소득 20가구에 성금 1천만원

경북 의성군 의성읍 성광교회(목사 이정락)는 10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0가구에 성금 1천만원을 지원했다.

동정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대통령 표창



주정덕 바르게살기운동 대구 중구협의회 회장은 지난 6일 충남도문화회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지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 행안부장관 표창



배성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칠곡군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13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열린 '2021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운영에 대구시의원 '좋은 조례' 최우수상



운영에 대구시의원(남구2)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윤 시의원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지내며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급한 입법을 해결해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 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도재영 민족통일 대구시협의회 회장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국민포장



도재영 민족통일 대구시협의회 회장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통 창설 40주년 기념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에서 민간통일운동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도 회장은 사회 초년 시절 공직에서 시작하여 현재 사업가의 길을 이어오기까지 진정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인이다. 2007년 민통에 입회하여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통일 운동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성공 개최, 청소년을 위한 통일 토코쇼, 통일퀴즈 아카데미 개최 등 각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 교육의 장을 마련해 민간통일운동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재영 회장은 "통일이 되어 민통산인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민간단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aeil.com

과메기·돌문어...포항 먹거리 세계화 나선다

음식산업 세미나·K-FOOD 케이터링 로컬푸드 기반으로 세계요리 선보여

경북 포항시는 14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음식문화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포항 음식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진행됐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대필 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장, 송영준 한국외식업중앙회 북구지부장, 정경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구지부장 등 각 외식지구별 회장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전문가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과 오영호 한식진흥원 팀장, 한경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각각 세션 발표자로 참여했다.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행동 변화를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등 포항 음식산업 발전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발표했고, 오영호 한식진흥원 팀장은 최근 전 세계 한식 소비 패턴과 성공 사례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포항 음식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여행을 위한 음식에서 음식을 위한 여행으로 전환



14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회 포항 음식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에서 이강덕(오른쪽 세 번째) 포항시장님이 음식을 맛보고 있다. 포항시 제공

됐음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음식관광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식사 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지정에 적극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표창도 전달했다.

2부 주제토론에서는 변광인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항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질의·응답하는 등 소통의 장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K-FOOD 케이터링 전시는 미국 에이미 시상식 파티를 주관했던 김

락훈 셰프 주관으로 과메기타코(멕시코)·돌문어탕양궁(태국)·등푸른마카르파초(이탈리아) 등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세계요리 케이터링 전시회로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발표 자료와 우리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 케이터링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참여해 주신 외식업계 관계자,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포항 먹거리 세계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아너 회원' 농민 부부 권용호·김동조 씨 성금 4천만원 전달

전국 최초로 '농민 부부'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에 이름을 올린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권용호(사진 가운데)·김동조 씨 부부가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부부는 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 회원(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 내 1천만원 이상 일시 기부하거나 약정)으로 가입, 4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올해 추가로 같은 금액을 냈다.

권 씨 부부는 영주시 안정면에서 쌀과 담배농사를 지으며 자수성가한 농민 부부로 2018년 1천만원, 2019년 3천만원을 연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헌신 봉사해 오고 있다.

권용호 씨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음덕(陰德)을 행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널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덕(陽德)으로 하게 되었



다"며 "지역사회에 온정이 넘치는 나눔 문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대상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최우수상 황병직·우수상 김희수



정영길 도의원 황병직 도의원 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영길 도의원이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광역 부문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또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이 최우수상, 김희수 부의장이 우수상 등을 받았다.

이번 의정대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하고 한국기업기술자치평가협회와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상을 받은 정 도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북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과 지금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등의 공동시설 하천정유료를 80% 감면하는 '경상북도 하천정유료 및 사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실질적인 도민 복지에 앞장섰다.

최우수상을 받은 황 위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관광을 구심점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우수상을 받은 김 부의장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북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정 도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아직도 남은 소임이 많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apple@maeil.com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손광영 안동시의원 최우수상 수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지방의회 개원 이래 7선을 역임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제8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자리로, 손 의원이 펼쳐온 풀뿌리 정치 기반의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엄재진 기자 jinee@maeil.com

울진 출신 육군 3성 장군 탄생 장광선 3사관학교장 중장 진급



경북 울진에서 3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9일자로 단행된 후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장광선(54) 제3사관학교장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장 중장은 2019년 전반기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2사단장, 육

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거쳐 지난 8월 3사관학교장으로 부임했다.

울진읍 고성리 기골마을에서 태어난 장 중장은 울진남부초, 울진중·고, 울진과학대를 졸업하고 대전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88년 육군3사관학교 25기로 소위 임관했다.

장 중장은 15일 강원도 춘천의 2군단장에 취임한다.

이상원 기자 seagull@maeil.com

노성향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보육사업 기여 복지부 장관 표창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노성향 교수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보육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해 포상하는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으로, 노 교수는 취약 보육 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교수는 '0세아 전유아리인업' '보육중장기 계획' 등 돌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다문화전문 교육과정'과 '방과후보육 교육과정' 등을 개발했다. '다문화보육과정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해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 교육과정도 수립했다.

노 교수는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열린부모교육학회 연구이사, 한국보육지원학회 이사과 대구시 동구 보육정책위원, 서울시 성동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연정 기자 lyj@maeil.com

이재홍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 교수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재홍 교수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 교수는 인성 덕목인 효(孝)와 테이핑 방법을 연계한 '효도하는 테이핑'과 '가족건강지킴이 물리치리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직업·진로체험을 통한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건강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도왔다. 이 교수는 "지역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전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연정 기자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력 11월 12일) 머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이죠. 해명도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48년생 새물개 때요르는 아이디어나 즉흥적인 계획도 오늘 은 대성공으로 마무리 하네요. ▶60년생 스프레스를 받거나 품팔 할 땐 단 음식이 최고예요. 달달한 간식들을 즐겨요. ▶84년생 배움을 있는 하루군요. 귀찮고 힘들더라도 배워보고 또 적극 도전해 보세요.



소

▶37년생 고민이 들고 돌아 와전될 수 있으니 걱 겁내요. 엉켰던 일도 풀리니 걱정 말아요. ▶49년생 그간 도움 받았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날로 보내봐요. ▶61년생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답니다. 작은 행동도 눈여겨 지켜본다면 정답이 보일 거예요. ▶73년생 스레스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보세요. 그것이 일이라도 조금 미루는 게 좋아요. ▶85년생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모르더라도 일단 아는 척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 보세요.



범

▶38년생 오늘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네요. 엉켰던 일도 풀리니 걱정 말아요. ▶50년생 상대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불필요한 배려는 적당히 하거나 안 하는 게 나아요. ▶62년생 나중에 후회하며 사과해야 될 일을 막기 위해 신 흥분할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74년생 가진 것은 없어도 편안한 마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심신을 안 거시기킬 바라요. ▶86년생 먼저 앞장서지 말고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토끼

▶39년생 권유는 좋지 만 강요가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고집 부리는 일은 삼가세요. ▶51년생 색안경 쓰고 봤던 사람이 오늘은 달라보일 수 있답니다. 색안경 뺄 준비 됐나요? ▶63년생 손해 보면서까지 장사하진 마세요. 오늘은 내 실속을 챙겨 모자람이 없어야 해요. ▶75년생 오늘이라도 진솔한 대화로 관계를 호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가면 불리해요. ▶87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성과가 있어요.



용

▶40년생 웬지 순조롭지 않을 운이니 잠시 미뤄뒀다가 오후 늦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 다. ▶52년생 어정쩡한 마무리 말고 확실한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77년생 다른 사람을 평가하러 간 개가 평가당할 수도 있으니 말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89년생 인간 관계에서나 어디서나 냉정한 결정은 필수입니다. 공과 사를 잘 지켜주세요.



뱀

▶41년생 말하지 않아 도 누군가는 나의 고단 미뤄뒀다가 오후 늦게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53년생 지출이 큰 하루입니다. 품팔이하게 기록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을 테니 명심해요. ▶65년생 불평 불만을 줄일 수 있 다면 무언해 보이고 좋 겠지만 오늘은 너무 참 지 마세요. ▶78년생 누구에게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하네요. ▶90년생 복은 받은 만큼 나눠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겨봐요.



말

▶42년생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보길 바랍니다. ▶54년생 갑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77년생 누구에게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하네요. ▶90년생 복은 받은 만큼 나눠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겨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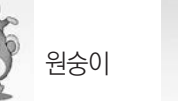
양

▶43년생 귀인은 언제 내 곁에 올지 모르지요. 그러나 항상 대인 관계를 완만히 해야 돼요. ▶55년생 바쁘다 속이 있다면 지체 말고 오늘 꼭 지켜보길 바랍니다. ▶67년생 잘한 일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일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테니 주책대진 저어 보세요. ▶80년생 '뽕뽕'이라고 하지도. 뽕 뽕은 뽕다. 오 늘이 그런 날이니 너무 조급해 말아요. ▶92년생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의사사람일 테니 동료들과 잡담을 멈추길 바랍니다.



원숭이

▶44년생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일은 없다면 괜찮습니 다. ▶56년생 괜한 김 말고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68년생 여러모로 얻는 것이 많은 하루입니다. 물 들 어왔을 때 제대로 노를 저어 보세요. ▶81년생 '뽕뽕'이라고 하지도. 뽕 뽕은 뽕다. 오 늘이 그런 날이니 너무 조급해 말아요. ▶92년생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의사사람일 테니 동료들과 잡담을 멈추길 바랍니다.



닭

▶45년생 불리한 상황 인 게 느껴진다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으니 압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57년생 오늘은 질보다 양이랍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해내는 게 좋네요. ▶69년생 정관념을 깨뜨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군요. 터닝포인트로 삼 아도 좋아요. ▶81년생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과감히 포기 해도 좋습니다. ▶93년생 충고가 속상하더라도 새겨두고 후에 나 를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

▶46년생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일이 꼬여 있어도 생각 보다 쉽게 풀려나습니 다. ▶58년생 혼자 생 각하고 결정하지 마요. 함께 의논한다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70년생 오 늘은 운세가 서서히 호전될 테니 오전에 많은 것을 처리하려 하지 않 아도 돼요. ▶82년생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한 말은 한 채 보세요. ▶95년생 미련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련하게 보이지 말아요.



돼지

▶47년생 오늘은 내가 참아야 합니다. 한 일이 꼬여 있어도 생각 보다 쉽게 풀려나습니 다. ▶59년생 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면 상대방을 너무 믿지 않는 방법도 나쁘지 않 아요. ▶71년생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고 있답니다. 대신 전달 해야 하는 말은 삼가는 게 좋아요. ▶83년생 나쁜 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징계하고 착한 일 에 있어서는 스스로 칭찬해 보세요. ▶95년생 미련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련하게 보이지 말아요.

다양한 에피소드로 서로를 알아가는 스타 부자



KBS2 '갯파더' 오후 10시 40분

KBS2 TV '갯파더'가 15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 보여주는 관찰 예능 '갯파더'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대한민국 부자(父子) 관계'를 재조명한다.

배우 김갑수와 가수 장민호 부자는 오붓하게 낭만의 섬 제주도에 도착했다. 렌터카부터 여행까지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는 즉흥 여행에 계획적인 장민호는 점점 초조해져간다. 실내용물원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순재와 아들 해제는 현주엽의 도

발로 점심 내기 웃놀이 한 판을 벌인다. 웃점으로 운을 점쳐 보는 세 사람, 신통방통 웃이 알려주는 초대박 운세의 주인공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웃놀이 대결의 최종 승자는?

한편 스포츠카를 타고 대전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현과 문세운 부자의 첫 번째 코스는 매운맛 불썸뽕집이다. 이어 대청호 갈대밭에서 두 사람은 그때 그 시절 19급 콩트를 보여준다.

문화부 이신혜 tvbox@maeil.com



오늘의 역사

1909년 12월 15일

기타리스트 타레가 작고

스페인의 기타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가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7세. 그는 경이적인 테크닉과 낭만적인 연주 스타일로 근대 기타의 아버지와 불린다. 그라나다의 무어족 유적지 알함브라 궁의 호젓한 아름다움에 자신의 실연의 상처를 더해 작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트레몰로 주법으로 그 신비로움과 우수를 표현한 클래식 기타의 최고 작품으로 손꼽힌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내고향 스페셜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불편해도 괜찮아2 / 55 송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9: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일일연속극(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11:00 수목드라마(학교 2021)(재)	5:00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세계 6:00 MBC 뉴스투데이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50 테마기획 갈 스페셜 8:50 일일드라마(두 번째 남편) 9: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45 구라기 식사교실(재) 11:15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재) 45 주라기키키3 12:00 12 MBC 뉴스 20 금토드라마(웃소매 붉은 굴동)(재)	5:00 네오세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7:10 TBC 굿모닝 뉴스 / 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15 TBC뉴스 / 30 특집 설맞 나눈 오늘 11: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의보감 12: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NEWS 50 월화드라마(그 해 우리는)(재)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코로동2 / 15 출동! 슈퍼웬스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8:00 당동명 유치원 / 30 한글용사 아이야 45 꼬마버스 타요 9:00 시용 / 15 불구야 말해줘(3재) 30 추피와 친구들 40 우라집 유치원 (시즌4) 10: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 10 국한직업 1: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2:10 EBS 다큐프라임(재) 3:0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25 클래스e(3) 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4:00 마사와 곰 / 15 오드몹, 이상한 아이들 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30 당동명 친구들(재) 50 내 친구 몬데이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30 아가사아 율리와 율리엄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퀴즈신 해결단 7:05 미스터 마구 / 30 한국의 들레길 50 문해력 유치원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05 바닷가 사람들 55 클래스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재널(1) / 50 가만히 10분 영TV 1:00 미래교육 플러스(재)
1: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50 불편해도 괜찮아(재) 55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당선을 응원합니다(재) 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3:10 어린이 동물타비 / 40 팔도밥상 스페셜 4:00 사자간전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라이브 오늘	1: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건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0 KBS 뉴스타임 10 인텔(재) / 30 TV 유치원 4:00 환경스페셜(재) 5:00 또봇V - 우주수호대 15 핫츠 고릴라 30 골렘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롱뽀롱 뽀로로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재) 4:55 5 MBC 뉴스 5:10 이웃의 식탁	2:00 뉴스브리핑 4:00 산토끼와 파도끼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5:00 SBS 오뉴스 25 TBC대중뉴스광장 50 테마 스페셜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코로동2 / 15 출동! 슈퍼웬스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8:00 당동명 유치원 / 30 한글용사 아이야 45 꼬마버스 타요 9:00 시용 / 15 불구야 말해줘(3재) 30 추피와 친구들 40 우라집 유치원 (시즌4) 10: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 10 국한직업 1: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2:10 EBS 다큐프라임(재) 3:0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25 클래스e(3) 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4:00 마사와 곰 / 15 오드몹, 이상한 아이들 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30 당동명 친구들(재) 50 내 친구 몬데이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30 아가사아 율리와 율리엄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퀴즈신 해결단 7:05 미스터 마구 / 30 한국의 들레길 50 문해력 유치원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05 바닷가 사람들 55 클래스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재널(1) / 50 가만히 10분 영TV 1:00 미래교육 플러스(재)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대구경북 40 세상다변화 8:30 일일연속극(국가대표 와이프)	6:30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사랑의 파배기)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6:05 생방송 시사각각 7:05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뉴스 8:30 TBC 8뉴스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코로동2 / 15 출동! 슈퍼웬스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8:00 당동명 유치원 / 30 한글용사 아이야 45 꼬마버스 타요 9:00 시용 / 15 불구야 말해줘(3재) 30 추피와 친구들 40 우라집 유치원 (시즌4) 10: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 10 국한직업 1: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2:10 EBS 다큐프라임(재) 3:0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25 클래스e(3) 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4:00 마사와 곰 / 15 오드몹, 이상한 아이들 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30 당동명 친구들(재) 50 내 친구 몬데이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30 아가사아 율리와 율리엄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퀴즈신 해결단 7:05 미스터 마구 / 30 한국의 들레길 50 문해력 유치원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05 바닷가 사람들 55 클래스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재널(1) / 50 가만히 10분 영TV 1:00 미래교육 플러스(재)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11: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건다(재) 1:00 서울국제음악제(신비로운 놀이동산) 2:3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40 송터(재) 4:45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9:30 수목드라마 <학교 2021> 10:40 갯파더 12:00 스토리온K 25 스포츠 하이아이드 50 통합뉴스룸(재) 1:2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2:15 KBS 재난방송센터(재)	9:0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10:30 라디오스타 12:10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굴동>(재)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20 최강1교시 1:20 매가전T 스페셜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코로동2 / 15 출동! 슈퍼웬스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8:00 당동명 유치원 / 30 한글용사 아이야 45 꼬마버스 타요 9:00 시용 / 15 불구야 말해줘(3재) 30 추피와 친구들 40 우라집 유치원 (시즌4) 10: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 10 국한직업 1: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2:10 EBS 다큐프라임(재) 3:0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25 클래스e(3) 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4:00 마사와 곰 / 15 오드몹, 이상한 아이들 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30 당동명 친구들(재) 50 내 친구 몬데이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30 아가사아 율리와 율리엄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퀴즈신 해결단 7:05 미스터 마구 / 30 한국의 들레길 50 문해력 유치원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05 바닷가 사람들 55 클래스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재널(1) / 50 가만히 10분 영TV 1:00 미래교육 플러스(재)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권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20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현대건설 12:50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GS칼텍스 H 16:00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현대건설 18:50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IBK기업은행 21:20 EVERYDAY 스페셜V 23:30 여자프로농구 BNK생·우리은행	10: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결경 여자 최종예선 14:00 2021 KTA 디아나미 태권도 최강전 17: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결경 여자 최종예선 20:00 여자프로농구 +BNK생 : 우리은행 21:00 2021 시도대학 축구 최강전 22: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결경 여자 최종예선	11:30 새만금 전국 장타대회 in 부안 13:30 더 리얼 레슨 말하는 대로 16:30 임진현의 전국투어 1박 2일 18:30 SBS골프 아카데미 조도현, 김다나 20:30 21 겨울준비대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22:30 더 리얼 라운드 : 골프로 반하다	11:50 2020 AFF 스즈키컵 베트남·라오스 H 13:50 2021 SBS 프로볼링 정웅권 16:50 21-22 SJ 소프트웨어 월드컵 대한민국 금메달 모음 18:50 21-22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OK금융그룹 21:20 2020 AFF 스즈키컵 23:30 21-22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IBK기업은행	10:00 평강배 2021 시니어바둑리그 12:30 평강배 2021 시니어바둑리그 15:00 2021 크라운해태배 17:30 제1회 오정원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 결승 22:00 오종도사 아문테나 전바둑 23:00 한일대만 여자 바둑 생방송
영화·경제	스크린	씨네크	SBS Biz	한국경제 TV
10:10 아빠는 딸 12:30 인턴 14:30 키마이라 17:40 메가론 19:50 히트맨 22:00 베테랑	10:30 비커밍아스트리드 12:55 퍼펙트케어 15:15 이벤트호라이즌 17:10 CSI:NY2 20:10 파이브브릿 22:30 데이킹라이브즈	12:20 나미야 잡학점의 기적 14:50 아이필리트리 17:05 엘리니를 찾아서 19:10 빨간머리 앤 22:05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23:20 엔들러스리브	11:25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사각각 14:25 Biz포커스 17:05 경제현장 오늘 19:40 라이프 인사이트 21:30 프리IPO 플라자 23:00 필살기 고수외전	10:30 주식경제 13:00 나의 투자 16:00 뉴스플러스 18:00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21:00 한국경제 23:00 대학로별 마켓
드라마·가족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00 옥탑방의 문제아들 13:40 연모 16:30 연애의 참견3 18:50 오늘부터 무해하게 22: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3:30 학교 2021	10:30 웃소매 붉은 굴동 13:40 전지적 참견 시점 15:20 나 혼자 산다 17:00 웃소매 붉은 굴동 21:00 웃소매 붉은 굴동 23:40 맘마미안	11: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4:00 그 해 우리는 17:10 그 해 우리는 19:3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1:00 나는 SOLO 24: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0:00 응답하라1988 14:00 아사와 조이 16:50 바퀴달린집3 19:10 동굴개술 20:40 유 퀴즈 온 더 블록 22:30 열혈골리아	11:05 우리 식구 됐어요 13:40 맛있는 녀석들 15:50 맛있는 코멘터리:단편단편 18:40 스트레인지 20:00 코한 연애 XL 22:35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종합·보도	TV조선	JTBC	채널A	YTN
10:20 헬로 트로트 13:40 MBN 프레스룸 15:30 현장로프 특종세상 19:20 MBN 종합뉴스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돌싱클즈2	10:30 세계테마기행 13:00 보도보도 핫라인 16:00 내일은 국민가수 베스트 19:00 백세뉴스 21:00 TV CHOSUN 뉴스9 22:00 미친 사람 X	10:00 공작도시 12:50 풍류대장 15:00 시간반장 19:30 JTBC 뉴스룸 21:00 내가 친구다 22:30 공작도시	10:3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2:50 뉴스A LIVE 15:50 오은영 금쪽같은 내새끼 17:20 뉴스 TOP10 20:10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23:50 소원도:여왕의 집	10:50 뉴스특보-코로나19 13:30 뉴스특보-코로나19 15:50 뉴스특보-코로나19 19:20 뉴스가 있는 저녁 20:50 뉴스특보-코로나19 23:50 뉴스특보-코로나19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T2재능TV	채널	YTN 사이언스
11:00 아가사아 율리와 율리엄 13:00 안녕자주아4:자주와 친구들 16:00 웰컴투 정글스쿨 19:00 민짜미 21: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23:00 달콤달콤 찰떡 찰떡	11:00 반짝반짝 달남이 13:00 톱과 제리 15:00 세이TV 넥스트레벨 18:00 헬로카봇 시즌11 생바 21:00 세이TV 넥스트레벨 23:00 도티&짐들TV	10:00 라바 아일랜드 13:00 안젤라 지우라 16:00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19:00 신 도라에몽 21:00 놀자미 정선준 22:00 소년탐정 김전일R	10:00 사이언스 스페셜 13:00 수다하 15:00 배틀무 시즌4 18:00 월드베스트 그곳에 가면 21:00 애니멀 시그널 23:00 사이언스 투데이	11:40 The Yard 14:25 48 Hrs Destination 2 16:15 New York Super Airport 18:05 Greatest Treasures of The Ancient World 21:00 World's Greatest Palaces 23:00 Greatest Treasures of The Ancient World
재능·해외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10:30 바티칸 리포트 12:00 낯가도와 전례 13:00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16:20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20:00 아레오파고스 23:00 바이블 갤러리	10:30 BTN 뉴스 13:00 김홍근 교수의 마음치유 16:00 가족신앙공동체를 위한 BTN가족기도 18:00 저녁예배 19:30 토코멘터리 한글 22:30 김원수 법사의 내안의 성서적 금강경	11:00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메시지 13:00 생명의 사랑 15:40 표인동, 온우선의 하늘빛방학기 18:10 황사와 목사의 하나님 나라 통동 20:20 부딪치기 스페셜 23:00 데이비드 플러스의 여배우 처치	12:00 BBC World News 14:00 BBC World News 16:45 World Business Report 18:00 BBC World News 20:00 Live With Lucy Hockings 23:00 Impact with Yalda Hakim	10:00 Anderson Cooper 360 14:00 CNN Newsroom 16: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1:30 New Day 23:00 First Move
재능·해외	EBS플러스1	EBS2	CGN TV	BBC World
5:00 [개념완성 문항편] 물리학 I 50 [개념완성 문항편] 생명과학 I 6:40 [개념완성 문항편] 지구과학 I 7:30 [개념완성 문항편] 화학 I 8:20 [올림포스] 기하 9:10 [올림포스] 기하	10:00 [2023 수능개념] 경제 50 [2023 수능개념] 세계사 11:40 [개념완성] 물리학 II 12:30 [2023 수능개념] 생명과학 II 13:20 [올림포스] 고난도 미적분 14:10 [개념완성 문항편] 물리학 I 15:00 [개념완성 문항편] 생명과학 I	9:30 초등2-2 통합 10:00 초등1-2 국어(I) 30 초등2-2 국어(I) 11:00 초등1-2 수학 30 초등2-2 수학 12:00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 13:00 도전! 나도 과학자 14:00 출가승 수하 EBS MATH	15:50 [개념완성 문항편] 지구과학 I 16:40 [개념완성 문항편] 화학 I 17:30 [올림포스] 고난도 미적분 18:2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9:10 [올림포스] 미적분 20:00 미래교육 플러스 50 [올림포스] 기하	21:40 [올림포스] 기하 22:30 [개념완성] 세계지리 23:20 [개념완성] 정치와 법 1:00 [개념완성] 생명과학 II 50 지식재널(1) 2:10 클래스e(1)
재능·해외	EBS2	EBS2	CGN TV	BBC World
6:00 EBSe 생활영어(재) 30 EBSe 생활영어 7:00 왕초보 영어(재) 30 왕초보 영어 8:00 Seasame street 30 매일 10분 영어 9:00 초등1-2 통합	9:30 초등2-2 통합 10:00 초등1-2 국어(I) 30 초등2-2 국어(I) 11:00 초등1-2 수학 30 초등2-2 수학 12:00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 13:00 도전! 나도 과학자 14:00 출가승 수하 EBS MATH	15:00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30 영웅담대 요리조리쇼 17:00 스쿨랜드 - 한자왕국 30 오드몹, 이상한 아이들 18:00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 30 할 수 있다고 45 예술가 놀자	19:00 도전! 나도 과학자 30 출가승 수하 EBS MATH 20:00 한국의 들레길 20 지식재널(1) 3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00 건축탐구 - 집 50 다큐 오늘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00 Anderson Cooper 360 14:00 CNN Newsroom 16: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1:30 New Day 23:00 First Move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119

대학교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1577-6622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문성서) 2500-8114 www.dsm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688-0077 www.dcmc.co.kr

경북대학교병원 1666-5114 www.knuh.kr

영남대학교병원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파티마병원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광명병원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구병원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3번출구

천주성심병원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요양병원

경주서림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구대-영천, 고령 방향

상주연세실버타운 054-533-1600 www.syst.or.kr

연세한방병원 054-531-9988

연세오양병원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회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 대학약국 254-8164 · (북구) 청우당약국 358-9696

· (중구) 한성약국 425-5575 · (북구/칠곡) 강북약국 323-8736

· (동구) 팜프라자약국 607-2733 · (달서구) 삼일약국 568-3375

· (서구) 경명약국 355-7255 · (달서구) 메디칼중앙약국 586-7900

·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독수리 오남매’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김세영(33)·김수성(33·대구 북구 침산동) 부부 다섯째 아들 김시후(태명: 범돌이·3.7kg) 9월 22일 출생

정말이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 막내아들 범돌이!

17개월이던 넷째 리아 누나도 막내라고 생각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너의 존재를 알았을 때 좋기도 했지만 다섯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도 앞섰었다. 그렇지만 너의 존재를 알려오는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는 우리 범돌이가 무사히 우리 곁으로 오길 기도했었다.

배 속에 있을 때 엄마는 신경도 못 써 주고 태교는 첫째 누나 단아(11), 둘째 누나 민아(9), 셋째 형아 형준(8), 넷째 누나 리아(3)와 함께 생활하며 지낸 것이 다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범돌이, 아니지 이제 시후야! 태어나니 든든한 누나 셋과 형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지?



아직도 아기인 넷째 리아 누나도 질투하지 않고 의젓한 누나 노릇을 하고, 첫째 단아 누나는 네가 태어나고 난 후 엄마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시후가 태어났으므로 우리 가족은 럭키 세븐, 이름하여 ‘독수리 오남매’로 완전체가 되었구

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시후야! 세상에 태어나 살아 있음을 우렁찬 울음으로 외친 것처럼 세상의 축복과 사랑을 우렁찬 울림으로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김시후.

자료 제공: 신세계여성병원(053-954-7771)

달서구 ‘두근두근 고백 우체통’으로 사랑의 마음 전하세요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월광수변공원에 ‘두근두근 고백 우체통’을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혼친화공원인 월광수변공원에 지난 10월 8일 두근두근 힐링 포토존 중 미라클 연인존에 ‘두근두근 고백 엽서와 고백 우체통’을 설치했다.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이나 고마운 마음을 엽서에 담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이용은 누구나 가능하며, 고백 우체통 옆에 두근두근 엽서 1천500여 장과 필기구를 비치했다. 20일까지 모인 엽서는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달서구민의 날인 22일 발송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인구 감소의 해법과 청년 결혼을 응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2016년 7월 13일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친구(9)에서 육(6)아의 의미를 담아 2018년 9월 6일 전국 유일의 결혼특구를 선포했다. 또한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웨딩플래너 및 커플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이색적인 만남 행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백 엽서를 통해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사랑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시책을 통해 결혼과 행복의 가치를 확산하는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우리 결혼합니다 김태웅·차미성

12월 19일 오후 2시 로터스101 2층 로터스홀



사랑천사 미성이에게.

우리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손과 손에 붉은 인연의 실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평생의 동반자로 결실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난 참 신기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아.

처음 나를 만나 설렘 반 걱정 반이었을 텐데 힘든 장거리 연애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언제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고마워. 결혼 후 낯선 곳에 사는 게 두렵고 많이 무서웠는데, 나 하나 믿고 힘든 결정을 해주셔서 고마워.

올해 초, 추운 겨울이 끝날 무렵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마지막 사랑이라 알려주고 다시금 추운 겨울이 시작될 무렵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 고마운 우리 미성이!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예뻐해 주는 마음 변하지 말고 평생 함께하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수호천사 태웅이가.

자료 제공: (주)고구마/고구마웨딩 1670-5456

화촉



▶변병진·송현숙 씨 차남 재우(대창 호이스트 대표) 군, 김성주(강북경찰서 근무)·이미자 씨 장녀 민아 양. 12월 19일(일) 오후 2시 노비아 갈라 동촌 5층 발렌티홀(대구 동구 동촌로 87).



▶김주연(대원건설산업 대표)·김군영 씨 아들 근호 군, 백영중·김명자 씨 딸 송이 양. 12월 25일(토) 오후 1시 40분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32).

공동 기획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탄소 다이어트의 시작은 (자전거, 대중교통, 승용차요일제) 타는 것부터!

함께해요 탄소 다이어트!

1년간 자전거로 출퇴근시 체중 감량 **25kg** 심장질환 위험 감소율 **50%**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의 중요성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으로 ‘환경은 탄소다이어트’ ‘내 몸은 건강 다이어트’

코로나로 자전거 이용 UP 규칙 준수 UP 안전 사고 DOWN

승용차요일제

2022년 1월 시행 승용차요일제로 **마일리지 최대 100,000포인트** 적립 받으세요!

사용방법 ①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후 승용차요일제 가입하기!
 ② 대중교통 이용해 마일리지 적립하기!
 ③ 대구시(디마일)앱 다운로드 후 지역화폐(행복페이)로 전환해 사용하기!

주최  每日新聞후원  대구광역시

TK 新반도체 성공 열쇠는 결국 인재

취재현장

채원영
경제부 기자

와이드밴드갭(Wide Band Gap·WBG)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블루오션이다. 기존 실리콘(Si) 기반 반도체가 고전압, 고전류,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과 달리 WBG 반도체는 높은 주파수나 전압, 온도에 더 낮은 전력 손실로 동작한다.

WBG 반도체는 소재에 따라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반도체 등으로 나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려면 WBG 반도체가 필수로 꼽힌다.

수요처는 전기차, 5G 통신망, 로봇, 스마트팩토리, 군수용 등으로 무궁무진하다. SiC 반도체를 사용하면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5% 증가하고 충전 시간은 75% 감소하며, 인버터 모터의 무게와 부피는 4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WBG 반도체가 속하는 전력 반도체 글로벌 시장은 지난 2019년 450억 달러에서 오는 2023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돼 있어 전력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2001년 일본, 2002년 미국을 추월해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56.9%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2009년 2.9%에서 지난해 2.9%로 11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전력 반도체는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WBG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개척해 나갈 분야로 주목받는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 국내 1위 기업 SK실트론이 있는 경북 구미는 반도체 산업 성장의 모멘텀으로 WBG 반도체를 주시하고 있다.

태동 단계인 WBG 반도체 시장을 대구경북이 선점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삼자는 논의가 지난 10일 구미코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연구원이 WBG 반도체 육성에 관심을 두고 올해 내내 연구를 거쳐 기획했다.

기자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세미나에서 정광진 SK실트론 부사장이 "WBG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문희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이 "대구경북 WBG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특히 WBG 반도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량 다품종 품목에 잘 맞는 WBG 반도체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또 하나의 유망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세미나는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토론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의 지적으로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김광희 엘앤디전자 대표는 "스타트업은 인재 채용 문턱에 부딪혀 좌절할 때가 많다. 반도체 같은 소재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은 더욱 그렇다"며 "인재가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관련 기술을 공부한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하니 놀랍도록 성과가 좋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대구 한 스타트업 대표의 경험담도 참고할 만하다.

일찌감치 새로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대구경북. 절실히 인재 채용을 바라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래가 가까워질 것 같다.

경제 칼럼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
분석학회 이사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여러 가지
건보료·연금 등 60가지 행정 기준도세금 올린다 했다가, 이내 미안하다
주택은 수요·공급 중심 정책 펼쳐야

하나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원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절대적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인해 온 나라가 술렁인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집에 관한 세금은 다양하다. 먼저,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취득가

액의 1~12%까지 부과하는데 일종의 거래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마다 매번 부과하므로, 참여정부 당시 취득세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라 판단하여 과거 5%이던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최대 12%까지 높여서 부과하고 있다.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정부는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19% 상향시켰다. 일부는 3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시세의 69% 수준이라며 시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 가격마저 대폭 상승하고 보니 부담이 되었는지, 특례세율을 만들어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1~2023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12월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 중이다. 납부 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28만 명 증가한 94만7천 명이 되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47구 중 1가구는 다주택 가구이며, 도 단위 시군구의 주택을 제외하고 도시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한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비율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종부세액도 전년도 1조 8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해 세율이 중과 적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기본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년도 부담액의 300%까지만 상한 적용을 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만, 차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6~45%까지 부과된다.

요즘 집값이 올랐다 하면 수익 원인데 8천800만~1억 5천만 원의 차액 발생 시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주택자에게는 중과돼 55~6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고가 주택은 6억 원 이상이었지만 2008년 9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최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다시 완화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면 서울 수도권권의 주택가격은 비과세 구간만큼 상향되는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인지세, 교육세, 등록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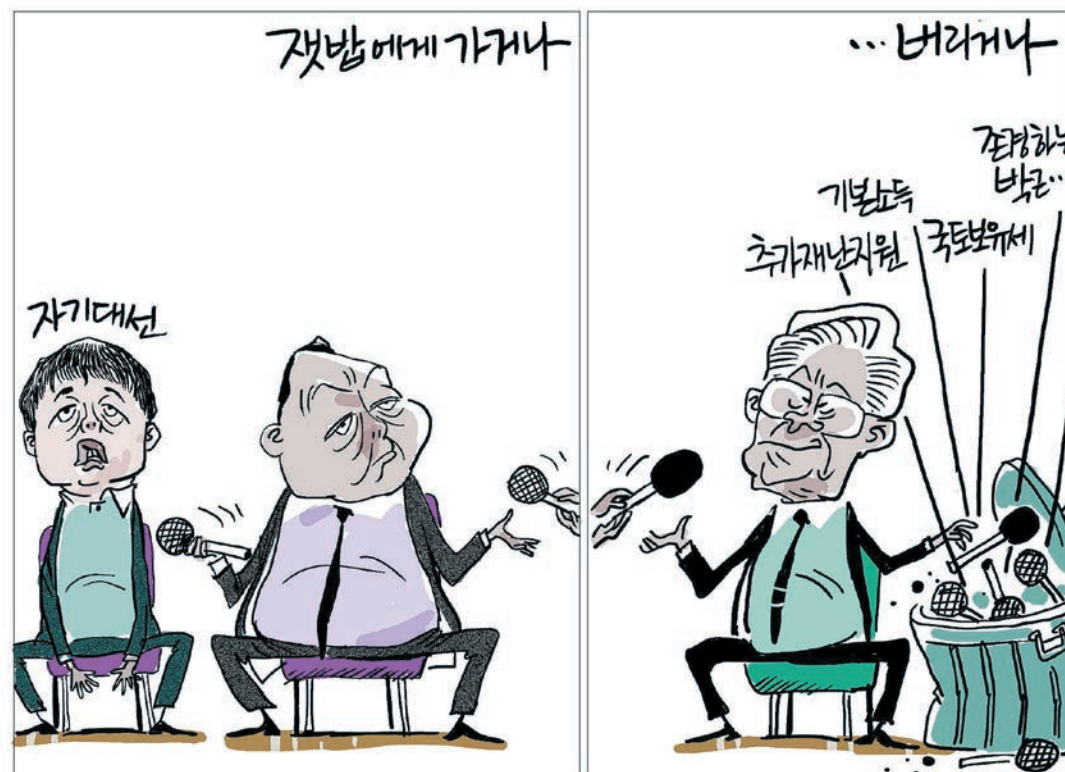
계획세, 주택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거래나 보유에 수반돼 부가되는 세액이 다수이며,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공시가격에 반영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가 부과하는 60여 가지 조세 행정 조치의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초 공시가격을 19% 상향하고 재산세 특례세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최대 50% 감면했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서는 납세 대상자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 납세 대상자와 세액을 줄여 주었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선 취소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기준 정책을 들고나와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또다시 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정책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니 팔라고 했다가, 이내 너무 올려 미안하다며 번번이 정책 변경을 한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세금과 대출 강화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를 단기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每日 회평

김경수

관공루
觀風樓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14일 배우자의 결혼 뒤 교수 임용 때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금시초문" 강조. 앞으로 대선 나설 분은 독심술 익히거나 배우자 취업 댄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할 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4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사회보장제 강화해 보편 복지국가 완성" 약속. 모두 고루 복지 누릴 대동(大同) 세상도 돈 없인 '말장판'일 터...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에 대구국제공항 대구~태국 방콕 노선 하늘길 재개 계획 연기. 가뜩이나 '방콕' (방에 록 박혀 지냄)에 지쳤는데 '방콕' 하늘길 또 막혔으니 아예 '위드 방콕' 하리라.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따뜻한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매일신문
www.imaail.com

발행인·편집인·인쇄인 이상택 주필주장 정창룡 뉴스국장 김교영 신문국장 이동환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경북본사 054)855-17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대표팩스 053)255-8902	동부지역본부 054)278-0001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7-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종, 대형, 2종소형, 편인차 자체시험
(츄레라)

- ▶ 53년 전통의 대구 최고 명문학원(since1968)
- ▶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 ▶ 면허증 취득시 각종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
- ▶ 공원 같은 쾌적한 교육장
- ▶ **NAVER** 대구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검색**
- ▶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시험칩니다!

★소형편인차 자체시험 OPEN!!★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팔달교역
(3호선 팔달역앞)

053-314-8888

경제는 정치 아닌 법치의 힘으로

시각과 전망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특강하는 자리에서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정책인 '기본금융'과 관련해 "부자들은 잘 갚는 집단이니가 이 자율이 엄청 싸고, 가난하면 이자를 엄청 높게 내야 한다. 이게 정의로운가"고 반문했다. 물론 이 후보는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고 금융의 공공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서 보듯 지도자의 잘못된 경제관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는 주장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가 싸고, 낮을수록 이자가 비싼 통상의 금융 원칙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당선 시 관 주도의 경제와 포퓰리즘을 실행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는 이 후보의 '이자론'은 은행권에 국한된 서민 다수의 표를 얻으려는 약민 갈라치기식 경제관이다. 돈을 빌리는 데 애로가 있는 사람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심산이다.

부자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고, 가난한 자나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낮은 이자를 낸다면 세상의 어느 은행이 버티겠나. 이런 은행이라면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물론 가난한 자와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가난한 자나 서민 다수는 이 후보의 발언이 솔깃할 수 있다.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장들조차 심정적으로는 금융권에 약자라고 느낄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선동이다. 민간은행의 금리를 소독별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후보의 반시장적 경제관은 '특정 지역에서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국토보유세'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좁은 지역에 음식점이 난립하면 제 살 깎기식 경쟁으로 업소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또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발을 빼기는 했지만 땅은 공공의 것=국가의

것이라는 이 후보의 인식은 조그마한 땅만 가져도 세금을 걷어 이른바 약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포퓰리즘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을 등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법치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정의(正義)가 없다면, 국가는 '경제주체가 각자 노력한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정의'가 보장되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법집서가 확립되어야만 기업가와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개개인의 이기심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환생한다면 철저히 법치를 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경제력 격차를 보고 법치의 위력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중남미·아프리카와 북미·유럽의 양상을 보면 그렇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노스(North) 등 신제도학과 경제학자들도 법치가 사유재산권 보호, 계약의 이행, 계약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가능케 해 경제발전과 경제정의 실현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는 이 후보의 말처럼 정치가 아니라 경제원칙에 바탕을 둔 법치에 의해 움직여야 효율적이다. 그 원칙은 공정경쟁, 계약의 신성함, 자기책임 등이다. 나머지는 자유로워야 한다.

로 경제 성적이다.

전 전 대통령 집권기(1981~1987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 3.04%보다 무려 5.66%포인트나 높았다. ‘화려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이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1986~1988년의 ‘3저’(저금리·저유

이재명의 말 뒤집기

가-저달리) 덕을 본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
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3
저는 세계 공통이었지만 한국처럼
잘 활용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런 평가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을 방문해 “전도화도 공

가 병존한다. 3저 호황을 잘 활용
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
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
하는 분이 많다"고 한 데 대해 "살인
강도도 살인강도였을 것이다. 사살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비난했
던 것과 천양지차의 평가였다.

이를 두고 TK에 잘 보이려는 진성성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믿어줘야 한다는 긍정적 반응도 없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두환 공과' 발언이 논란을 빚자 13일 오전 대통령이 '범피자'라고 네 차례나 반복했다. 이런 말 뒤집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imaeil.com

사설 社說

코로나19 중환자·사망자 급증 '위드 코로나' 비상 조치 내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일 연속 8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더니 급기야 900명(14일 0시 기준 906명)을 넘어섰다. 일일 사망자도 100명대 육박(14일 0시 기준 94명)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61명을 크게 넘어섰다. 고령 중증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 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입원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코로나 중증 병상 부족이 심각하다.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른 만큼 우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의료 인력만 쥐어짜는 K방역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중환자 규모를 줄여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한다.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는 망설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오래 해온 자영업자·등을 생각하면 경제 회복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은 아니다”면서도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수요일(15일), 목요일(16일)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가동률 81.8%, 가용 병상은 235개에 불과하다. 갑열병 전담 병원 일반 병상도 가동률 76.1%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대학병원 등에 코로나 중증 환자를 위해 병상을 차출하면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할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전담 의료 인력도 부족한 일반 환자 진료 인력을 차출함에 따라 다른 진료나 수술이 후순위로 밀리는 형편이다.

정부는 1, 2주 동안이라도 '수도권 위드 코로나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도시들도 비상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당장 얼마나 많은 신규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실기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배제할 수 없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는 말이 꼭 맞는 상황이다.

‘의료 오지’ 경북에 의대 신설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경북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과 안동에 각각 연구 중심 의대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다. 두 도시가 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에는 지역 정치권이 유지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경북도도 적극 나섰다. 하나의 의대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의대 2개를 설립하자는 여론이 경북에서 강하게 분출되는 것은 그만큼 의료 환경 개선이 절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경북이 의료 오지라는 점은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 42개소나 되는 삼급 병원이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6위이며,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의료 취약 인구 비율도 전국 최하위다. 의료 인프라 낙후로 인해 시의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바람에 목숨을 잃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안동에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계속 대두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총각을 다투는 집현에 걸렸는데 병원까지 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 의료인프라 부족은 지방 소멸 시계를 앞당긴다. 비수도권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지방에 사람이 살게 만드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현 정권이 추진했다가 특정 지역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좌초된 바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의료 나후 지역 몇 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여론 지지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북은 의대 신설 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이다. 아울러 포항에 정원 60명 규모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 의료산업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정부가 안동과 포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주문하며, 지역 정치권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노인복지관 간판 바꾸는 데 뭉치 예산 쓰겠다는 동구청

대구 동구청이 노인복지관 간판을 바꿔 다는 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 등 기초자치단체의 뼈든한 살림살이로 볼 때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구청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고 전혀 미흡지도 않다는 것이 구의회와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동구청은 최근 신기동 소재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우고 간판 교체 비용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 2013년 9월 개관한 이 어르신행복센터 명칭은 당시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8년 넘게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16년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기 이후 비슷한 명칭이 주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대구 19개 노인복지관 중 현재 명칭이 다른 곳은 강동여르스행복센터가 유일하다는 게 명칭 변경과 간판 교체의 배경이다. 동구청은 애초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구의회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3천만 원으로 축소했다.

내년도 대구시 본예산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서는 것에 비해 볼 때 예산 3천만 원이 줄쫓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구청의 재정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만만치 않다. 2020년 기준 동구 재정자립도는 고작 19.5%에 불과하다. 대구 8개 구·군 평균인 24.7%에도 한참 모자란다. 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곳은 서구와 남구밖에 없다.

명칭 변경은 그렇다 쳐도 간판을 전부 교체하는 데 굳이 많은 예산을 쓸 까닭은 없다. 기존 간판은 그대로 두고 반듯한 나무 현판이라도 마련해 ‘노인복지관’임을 알 수 있게 세우면 될 일이다. 간판에 돈을 쓰기보다 차라리 노인 여가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설비 마련에 쓰는 게 백번 낫다. 그저 보기에만 좋은 떡은 복지가 아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아야 그게 진정한 시미 복지이고 올바른 행적이다.

NAVER

회원프리모

검색

명장가발

항암가발
50%할인

가발 쓰면 답지 않습니다. 흘렁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명도 타제품보다 오래 갑니다. 스타일도 자연스럽습니다.
가발 쓰고 샤워나 목욕 해도 됩니다.
티가 안 납니다. 가발 쓰고 CT나 MRI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최원희 명장 본인도 탈모로 고민하다 개발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제330호 최원희)

대한민국명장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명장가발

표나지 않는
얇 이마라인

얇 이마라인이 본 머리
카락처럼 매우 자연스
러워 가발이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자연스런
가르마

빛으로 빛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 나
는 가르마는 머리카락
이 흐트러져도 자연스
럽다. 손질하지 않아도
가르마가 되살아난다.

숨털 같은
가벼움

가발의 무게는 약 10g.
숨털처럼 가벼워 가발
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부드러운
형상 기억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뛰어난 가발을 착용하
고 잠을 자거나, 목욕
이나 수영을 한 뒤에도
가발은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 되돌아온다.

얇아서
뛰어난 착용감

자연모를 최상기술의 인
공두피인 특수소재에 심
어 가발의 두께는 매우
얇다. 내 머리에 꼭 맞는
1대1 맞춤가발이라 착용
감이 뛰어나다.

인체공학적인
환기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
게 만들어져 모발과 맞
닿은 초극세화한 구멍
이 공기순환의 역할을 해
서 환기성이 비약적으
로 향상되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상업포장 제7150호 수훈

탈모로 고민하던 제가
직접 만들어 써보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명장가발
최원프리모
Since 1982

대구반고개본점 **확장이전** 053) **522-9000, 629-8888**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63(내당동 75-35) 지하철2호선 내당역 4번출구에서 300m 직진
버스:156, 250, 323-1, 509, 성서2, 금행6 버스정류장 반고개 하차

■전국 1577-0450 ■여의도점 02)780-8993 ■강남점 02)3448-8888 ■창원점 055)274-5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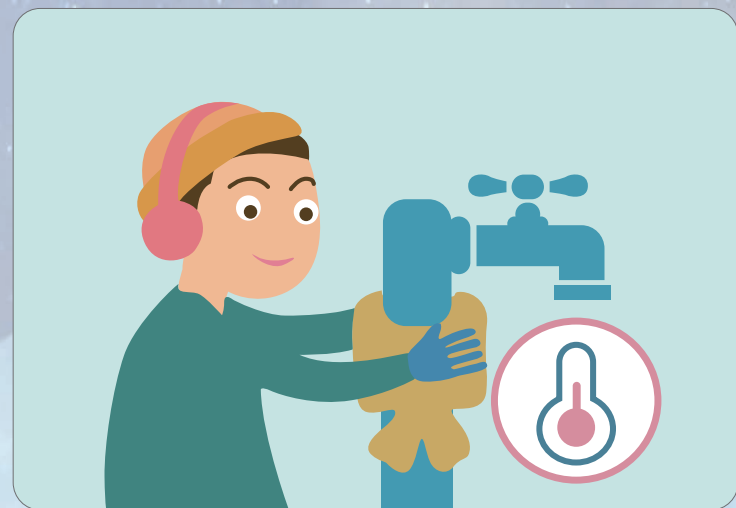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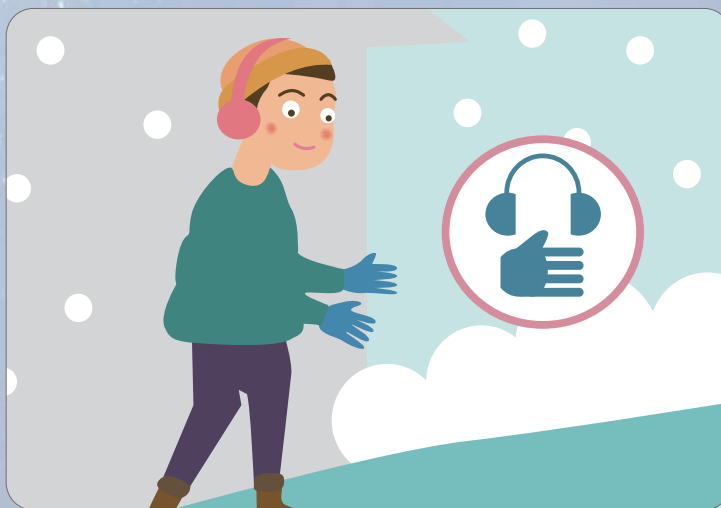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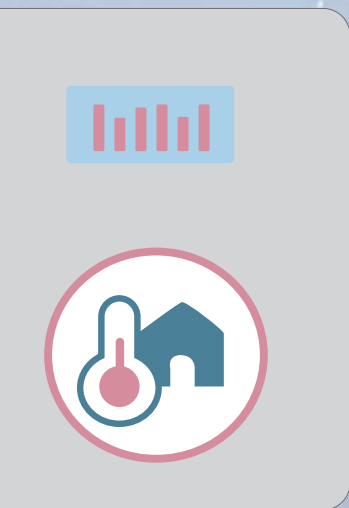
덥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수명이 길고
스타일은 자유자재 내 마음대로
가발을 착용하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릿살 조절이 가능하여
처음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36건 보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한파 대비로 시작하세요.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



- 1 겨울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합니다.
- 2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시 심장,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방에 유의합니다.
- 3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유의합니다.
- 4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 5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6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간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7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헨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
- 8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